

# 2000년 연간 증시동향

---

2001. 1

연구위원	오 승 현
	송 치 승
연구원	김 정 연
	김 정 태

한국증권연구원

## 序 言

IMF 위기발생 이후 3년은 외환위기의 극복 및 경제활력의 회복 과정이었다. 그 기간동안 IT 및 BT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육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면상의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급락 및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2000년은 위기의 재발이 우려되는 해였다. 그 동안의 경기회복은 선진국 경기와 반도체시장의 호황 등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및 공공자금을 포함한 110조원의 공적자금의 투입에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대외환경 호전 및 유동성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회복은 많은 시장참여자를 위기의 원인이 해결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희망으로 시작한 2000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BBB급 이하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로 실물경기가 불안해졌고, 3/4분기 이후 각종 경기지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지연, 금융시장 불안, 경기둔화, 실질국민소득 감소,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증폭된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은 민간소비 및 소비심리를 급격히 하락시켜서 장기불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증시 동조화에 의한 미국증시의 하락 및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이 반영되어 주식시장은 연초대비 52%(KOSPI) 하락하였다. 금융시장 불안은 불안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안정성 자산인 국공채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지표채권인 국고채 수익률은 연초 9-10%대에서 5-6%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국채시장의 활성화는 회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그 성과가 반감되었다. 투자자들은 기업 및 금융기관을 불신하고, 금융기관은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을 회피하는 신용경색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은 마비되었고, 정부 정책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 회사채 차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우리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이 “신뢰의 상실”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시장참여자간의 신뢰가 상실되었을 경우 거래는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시장은 붕괴된다.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투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를 개발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이유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인 “시장참여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그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현재 지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간의 신뢰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2001년 들어 주식시장은 외국인 순매수,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독려,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회복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스스로 비수익성 사업을 정리하여 과잉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대처해서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교역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대외경제 환경 변화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될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1년의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요약 기술한 것이다. 지난 1년을 재검토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여 향후 경제환경에 좀더 슬기롭게 대응한다면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교훈을 거울삼아 현재의 어려움이 향후 경제 발전의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길 바라면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한다.

2001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 <목 차>

<b>I. 한국경제의 구조</b> .....	<b>1</b>
1. 한국경제의 생산구조 .....	1
2. 한국경제의 매출구조 .....	8
<b>II. 실물경기</b> .....	<b>11</b>
1. 총수요 .....	11
가. 소비 .....	11
나. 투자 .....	12
다. 수출입 .....	14
2. 총공급 .....	21
가. 생산 .....	21
나. 출하 및 재고 .....	21
다. 노동시장 .....	22
3. 물가 .....	24
<b>III. 금융시장 동향</b> .....	<b>27</b>
1. 원화자금 시장 .....	27
가. 자금수급 .....	27
나. 자금흐름 .....	28
다. 채권수익률 .....	35
2. 외화자금시장 .....	36
가. 국제수지 현황 .....	36
나. 외환보유고 및 대외채무 .....	38
다. 환율 .....	39

<b>IV. 한국경제의 시장가치 - 주가동향</b> .....	<b>41</b>
1. 지수 동향 .....	41
가. 거래소 .....	41
나. KOSDAQ .....	43
2. 거래동향 .....	45
가. 거래소 .....	45
나. KOSDAQ .....	47
3. 한국기업의 최근 경영성과 .....	49
가. 재무구조 .....	49
나. 수익성 .....	51
4. 향후 증시 영향요인 .....	53
가. 금융 구조조정의 성패 .....	53
나. 미국 경기 경착륙 가능성 .....	54
다. 금리 .....	56
라. 신용경색 현상 .....	57
마. 원화환율 .....	58
<b>&lt;부록 I : 주요 증시영향사건 (2000.1~2000.12)&gt;</b> .....	<b>59</b>
<b>&lt;부록 II : 해외경제 동향&gt;</b> .....	<b>67</b>
1. 세계경제 .....	67
2. 미국 .....	69
3. 일본 .....	73
4. 유로지역 .....	76
5. 아시아 지역 .....	84
6. 중남미 .....	86

## <표차례>

<표 I-1> 주요산업별 GDP 기여도 .....	1
<표 I-2> 5대 업종의 비중 .....	2
<표 I-3> 국내 반도체산업의 수급동향 .....	4
<표 I-4>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위치 .....	5
<표 I-5>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의 위치 .....	6
<표 I-6> 세계 신조선 수주 추이 .....	7
<표 I-7> 국내생산물의 수요비중 .....	9
<표 IV-1> 거래소시장 거래지표 .....	45
<표 IV-2> 거래소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	46
<표 IV-3> 코스닥시장 거래지표 .....	47
<표 IV-4> 코스닥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	48
<표 IV-5> 제조업의 재무구조 관련지표 .....	49
<표 IV-6> 제조업의 자산운용 관련지표 .....	50
<표 IV-7> 건설업 및 도·소매업의 재무구조 관련 지표 .....	50
<표 IV-8> 제조업 손익계산서 .....	51
<표 IV-9> 제조업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	52
<표 IV-10> 건설업 및 도·소매업의 수익성 지표 .....	53
<표 부록 I-1> 1.2차 기업퇴출 판정 비교 .....	63
<표 부록 I-2> 국민·주택은행 합병 내역 .....	65
<표 부록 II-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68
<표 부록 II-2> 주요 아시아 신흥시장국 경제성장률 전망 .....	85

## 〈그림차례〉

〈그림 I -1〉 세계 반도체산업의 성장률 .....	3
〈그림 I -2〉 D램 가격 추이 .....	4
〈그림 II-1〉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1995년 1/4~2000년 3/4) .....	11
〈그림 II-2〉 도소매 판매증가율 (1998. 10~2000. 11) .....	12
〈그림 II-3〉 내수용 소비재출하 증가율 (1998. 10~2000. 11) .....	12
〈그림 II-4〉 설비투자 증가율 (1998. 10~2000. 11) .....	13
〈그림 II-5〉 건설투자 증가율 (1998. 10~2000. 11) .....	13
〈그림 II-6〉 수출입증가율 (1998. 10~2000. 11) .....	14
〈그림 II-7〉 수출입단가증가율 (1998. 10 ~ 2000. 11) .....	15
〈그림 II-8〉 교역조건 증가율 (1998. 10 ~ 2000. 11) .....	15
〈그림 II-9〉 수출입물량 증가율 (1998. 10 ~ 2000. 11) .....	16
〈그림 II-10〉 품목별 수출증가율 (2000. 1 ~ 2000. 11) .....	17
〈그림 II-11〉 지역별 수출증가율 (2000. 1 ~ 2000. 11) .....	18
〈그림 II-12〉 용도별 수입증가율 (2000. 1 ~ 2000. 11) .....	19
〈그림 II-13〉 지역별 수입증가율 (2000. 1 ~ 2000. 11) .....	20
〈그림 II-14〉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 평균가동률 (1998.10~2000.11) .....	21
〈그림 II-15〉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1998.10~2000.11) .....	22
〈그림 II-16〉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1998.10~2000.11) .....	23
〈그림 II-17〉 실업률 (1998. 10~2000. 11) .....	23
〈그림 II-18〉 임금상승률 (1998. 10~2000. 10) .....	24
〈그림 II-19〉 물가상승률 (1998. 10~2000. 12) .....	25
〈그림 III-1〉 통화량 추이 .....	27
〈그림 III-2〉 가계대출 추이 .....	28
〈그림 III-3〉 기업대출(신탁포함) 추이 .....	29
〈그림 III-4〉 예금 및 대출금 추이 .....	29
〈그림 III-5〉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	30
〈그림 III-6〉 회사채 발행 및 상환현황 .....	31
〈그림 III-7〉 회사채 종류별 발행현황 .....	31
〈그림 III-8〉 유상증자 현황 .....	32
〈그림 III-9〉 은행 수신 추이 .....	33
〈그림 III-10〉 투신사 수신고 동향 .....	34
〈그림 III-11〉 펀드 종류별 수신고 비교 .....	34

<그림 III-12> 채권수익률 추이 .....	35
<그림 III-13> 경상수지 추이 .....	36
<그림 III-14> 최근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	37
<그림 III-15> 수출입 추이 .....	37
<그림 III-16> 외환보유고 추이 .....	38
<그림 III-17> 대외채무 현황 .....	39
<그림 III-18> 2000년 중 원/달러 환율 추이 .....	40
<그림 III-19> 원/달러 환율 장기추이 (1993 ~ 2000) .....	40
<그림 IV-1> KOSPI 추이 .....	41
<그림 IV-2> KOSDAQ 지수 추이 .....	43
<그림 부록 I-1> 주요 증시영향사건 .....	59
<그림 부록 II-1> 경제성장률 추이 .....	67
<그림 부록 II-2> 국가별 GDP 점유율 비교 .....	68
<그림 부록 II-3> 미국 GDP 성장률 추이 .....	69
<그림 부록 II-4> 미국 실업률과 CPI 추이 .....	70
<그림 부록 II-5> 미국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	71
<그림 부록 II-6> 미국 통화량 및 주요금리 추이 .....	72
<그림 부록 II-7> 미국 주요주가지수 추이 .....	72
<그림 부록 II-8> 일본의 GDP성장률 추이 .....	73
<그림 부록 II-9> 일본의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	74
<그림 부록 II-10> 일본의 실업률 및 CPI추이 .....	75
<그림 부록 II-11> 일본의 통화량, 금리 및 주가 추이 .....	75
<그림 부록 II-12> 엔/달러 환율추이 .....	76
<그림 부록 II-13> 유로지역의 GDP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	77
<그림 부록 II-14> 유로지역의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	77
<그림 부록 II-15> 유로지역 통화량, 금리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	78
<그림 부록 II-16> 독일의 GDP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	79
<그림 부록 II-17> 독일의 실업률, 물가, 국채금리 추이 .....	80
<그림 부록 II-18> 독일의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	81
<그림 부록 II-19> 프랑스 GDP성장률 추이 .....	81
<그림 부록 II-20> 프랑스의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	82
<그림 부록 II-21> 영국의 GDP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	83
<그림 부록 II-22> 영국의 실업, 물가, 통화량, 기준금리 추이 .....	83
<그림 부록 II-23> 영국의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	84

<그림 부록Ⅱ-24> 중국 GDP성장률 추이 .....	85
<그림 부록Ⅱ-25> 중국 및 동남아 주요 주가지수 추이 .....	86
<그림 부록Ⅱ-26>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	88

# I. 한국경제의 구조

## 1. 한국경제의 생산구조

□ 생산비중

○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의 순으로 생산비중이 큼.

— 경제의 서비스화를 반영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

— 건설업의 비중은 90년대중 11% 수준에서 거의 정체

<표 1-1> 주요산업별 GDP 기여도

연 도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1990	38.6%	28.0%	11.4%
1995	41.8%	29.4%	11.3%
1998	49.5%	33.2%	14.1%
1999	46.9%	60.5%	-10.1%

주) 서비스업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구성

— 서비스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98년중 GDP의 21% 기여

—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98년 현재 세계전체의 제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GDP의 20%, 61%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26%, 51%로 아직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이 큰 편임.

○ 제조업의 선도

-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은 제조업의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제조업 성장이 여타 부문에 (+) 파급효과 발생
- 제조업 중 5대 주요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유화, 철강, 조선으로 들 수 있음.

□ 주요산업

**<표 1-2> 5대 업종의 비중**

(단위 : %)

업종	제조업 매출 비중 (98)	수출 비중 (99)
반도체	4.5	13.3
자동차	9.1	7.7
유화	17.3	4.1
철강	6.6	4.9
조선	4.8	4.6
5대업종 합계	42.3	34.6
대GDP비중	13.4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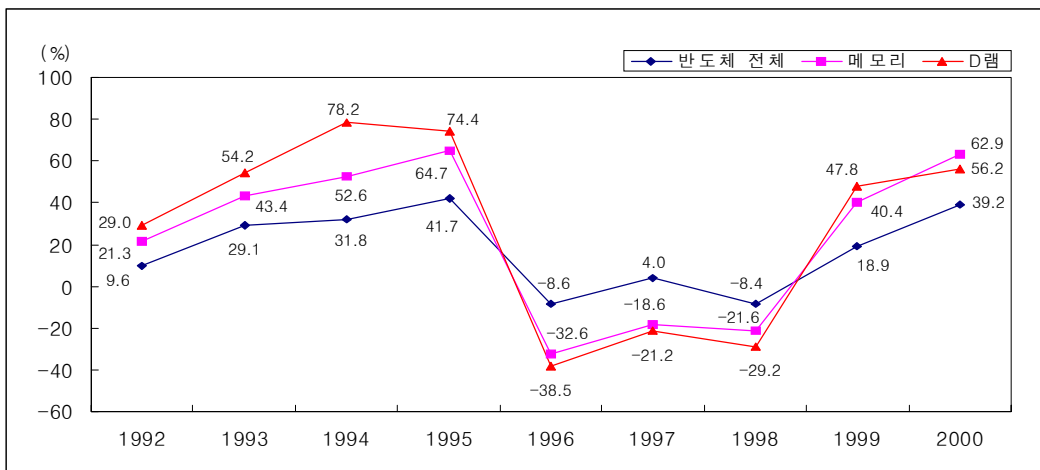
○ 반도체

- 2000년 반도체산업 호황 지속
  - 96년부터 지속된 세계 반도체경기 침체가 98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00년 세계 반도체산업은 99년에 이어 고성장 기록
  - 아시아경제 회복, 미국경제 호황 지속,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산 및 PC시장 확대 등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
- 2000년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
  - 반도체시장 규모는 99년 대비 39.2% 신장, 국내 반도체업체의 주력제품인 D램의 경우는 99년 대비 56.2% 증가<sup>1)</sup>

1)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 국내 반도체산업도 세계 반도체경기의 호전에 따라 큰 폭의 성장세 유지
- 2000년 반도체가격은 상반기에는 수요증가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수요둔화와 공급증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특히 최근 국내 메모리반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D램 반도체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 최근 들어 생산량 급증과 PC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재고물량의 시장처분에 기인
  - 2000년 11월말 현재 64M 싱크로너스 D램은 개당 3달러수준, 128M 싱크로너스 D램은 개당 7달러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림 1-1> 세계 반도체산업의 성장률



주 : 2000년은 추정치임

자료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표 1-3> 국내 반도체산업의 수급동향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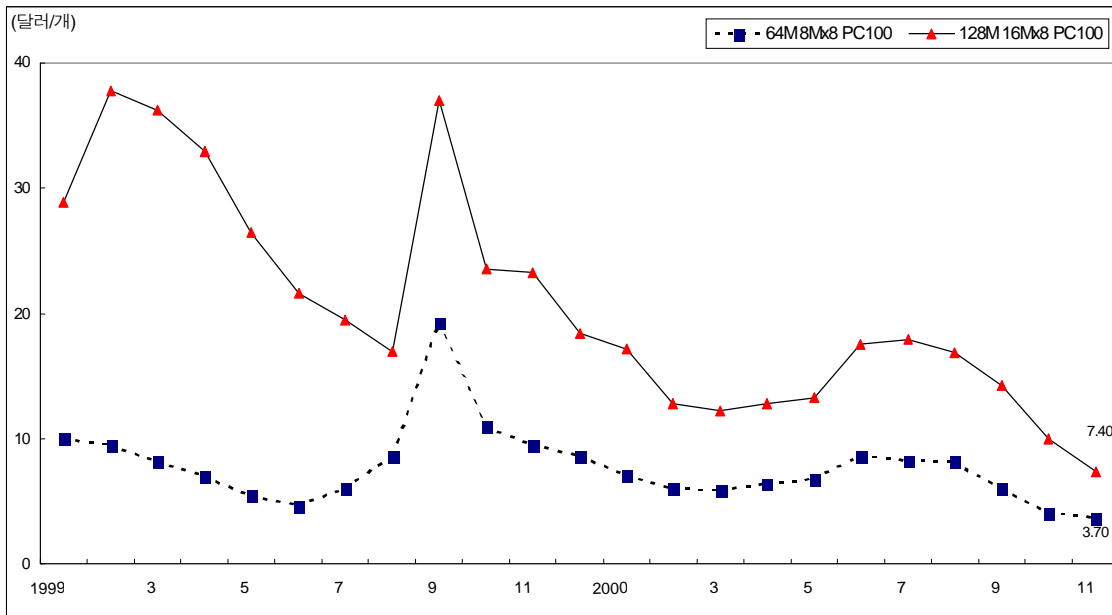
		1999		2000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공 급	생 산	21,914	27.4	29,000	32.3
	수 입	16,130	31.7	20,300	25.9
합 계		38,044	29.2	49,300	29.6
수 요	내 수	19,192	54.4	22,900	19.3
	수 출	18,852	10.8	26,400	40.0

주 : 1) 내수 = 생산 + 수입 - 수출

2) 2000년은 산업은행 예측치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그림 1-2> D램 가격 추이



주 : 북미 현물시장의 매월 말 최저가격 기준

자료 : AICE

○ 자동차

— 단일상품으로 세계 최대의 교역상품

· 우리나라 제조업 총매출액의 9.1% (98년), 총수출의 7.7%(99년)를 차지

— 자동차공업의 발전정도는 일국의 기술수준과 경제력 측정의 지표역할

— 2000년 중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 수요 모두 활발

· 99년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 호전에 따른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생산, 수요가 각각 전년대비 12.8%, 11.7% 증가

<표 1-4>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위치

(단위 : 천대)

순위	생산		수출	
	국가	대수	국가	대수
1	미국	13,018	일본	4,409
2	일본	9,985	독일	3,676
3	독일	5,688	프랑스	3,255
4	프랑스	3,180	스페인	2,374
5	스페인	2,852	캐나다	2,314
6	한국	2,843	한국	1,510
7	캐나다	2,735	미국	1,255
8	영국	1,973	영국	1,213
9	중국	1,805	멕시코	1,077
10	이태리	1,701	이태리	798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 : 1999년 기준

○ 유화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국

· 우리나라 제조업 총매출액의 17.3%<sup>2)</sup> (98년), 총수출의 4.9%(99년)비중

2) 기업경영분석 (1999), 코드 D23+D4.

<표 1-5>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의 위치

	1990		1995		1999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미국	1	30.0	1	29.1	1	27.9
일본	2	9.0	2	8.1	2	7.7
독일	4	5.8	3	5.4	3	5.4
한국	9	1.8	5	5.0	4	5.3
중국	8	2.9	8	3.3	5	4.6
러시아	3	6.3	4	5.0	6	4.4
캐나다	6	3.9	6	4.2	7	4.1
사우디	7	3.4	7	3.7	8	3.6
프랑스	5	4.3	9	3.2	9	3.3

자료 :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1999

○ 철강

- 제조업 총매출의 6.6%, 총수출의 4.9% 비중 (1999년 기준)
- 2000년 철강산업은 총수요 기준으로 1997년도 수준 초과
  - 2000년 국내 철강산업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총수요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도 수준을 초과하는 호조세를 보임.
- 공급능력 확대에 의한 냉연강판 수출 급증
- 설비부문별 불균형 심화로 구조조정 시급
- 합리화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큰 폭 증가 예상

○ 조선

- 99년 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세계시장의 33.3%의 점유율을 기록, 26.0%를 수주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
- 2000년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량은 99년 대비 52.9% 증가 전망
  - 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경쟁국인 일본 조선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국내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

- 2000년 상반기까지 세계 조선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부진
  - 일본 조선업체의 수주량은 2000년 상반기에 99년의 81.4%를 수주하여 수주규모 기준으로 볼 때 부진을 보인 것은 아님.
  - 그러나 엔화 강세로 가격경쟁력이 열위를 보이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6> 세계 신조선 수주 추이

(단위 : 천CGT, %)

	1998		1999		2000*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한 국	4,682	24.9	6,325	33.3	6,774	41.8
일 본	6,225	33.1	4,934	26.0	4,016	23.8
AWES	5,170	27.5	3,975	20.9	3,124	19.3
기 타	2,746	14.5	3,759	19.8	2,299	14.2
합 계	18,823	100.0	18,993	100.0	16,213	100.0

주 : 1) AWES는 유럽조선공업협회 14개국

2) \*는 2000년 상반기까지의 수치임

자료 : Lloyd's

특징

○ 중화학공업 위주의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

— 장점

- 규모의 경제
- 전후방 연관효과 크므로 경제성장시 견인차 역할

— 단점

-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이므로 영업레버리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전체가 경기변동에 민감

- 투자 회수기간 길어서 장기간 금융비 부담
- 경기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경기침체시 유희설비 발생으로 고정비 부담 증가
- 전후방 연관효과 크므로 경기침체시 여타 부문 파급효과 큼
-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세계경제 성숙화되면서 수요축소

○ 일본산업과의 경합구조

- 개발경제 시대에 일본을 모델로 하는 산업성장정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산업이 일본과 경합구조
- 한·일 주요 수출품목 순위 비교
  - 반도체 : 한국 수출 1위, 일본 수출 2위
  - 자동차 : 한국 수출 2위, 일본 수출 1위
  - 선 박 : 한국 수출 3위, 일본 수출 7위
  - 브라운관 컬러TV, 컴퓨터 주변기기 등 : 양국 모두 10위 이내
- 일본과의 경합구조 때문에 우리 산업은 엔화가치 변동에 민감

## 2. 한국경제의 매출구조

- 99년 기준 한국경제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는 25%가 외국에 의해 수입되고 75%가 국내에서 수입
- 99년 중 민간소비·투자·정부지출의 대GDP 비중은 32.9%, 12.3%, 0.6%이나 각 부문에 소요되는 수입액을 추정하여 제거하였을 때 국내생산물은 <표 1-7>과 같이 구입되는 것으로 추정<sup>3)</sup>

— 민간소비 차지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수요부문이며 그 다음이 기업투자로 수출차지비중을 앞섬.

**<표 1-7> 국내생산물의 수요비중**

(단위 : %)

연 도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외국 (수출)
1990	50.7	23.2	10.5	15.0
1995	53.1	21.9	9.6	15.4
1998	53.8	3.6	10.9	32.0
1999	37.1	27.4	10.1	25.5

자료 : 「국민계정」, 한국은행

주 : 99년 중 총수입에서의 수출용 수입비중 46.7%, 내수용 수입비중 53.3%, 생산재 수입비중 90.2%, 소비재 수입비중 9.8%를 분석기간중 그대로 적용.

3) 부문별 수입재 소요비중은 소비 5.2%, 투자 48.1%, 정부 0.0%, 수출 46.7%로 추정됨.

## II. 실물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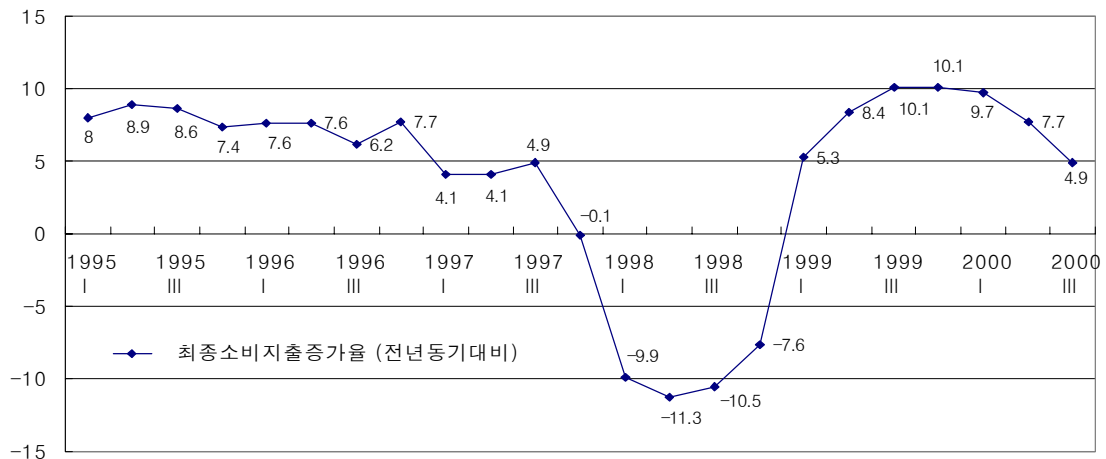
### 1. 총수요

#### 가. 소비

##### ○ 소비증가세 둔화

- 99년 하반기 이후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 3/4분기에 4.9% 증가율 기록
- 2000년 3/4분기 최종소비지출과 민간소비는 모두 2/4분기 대비 감소하였음 (각각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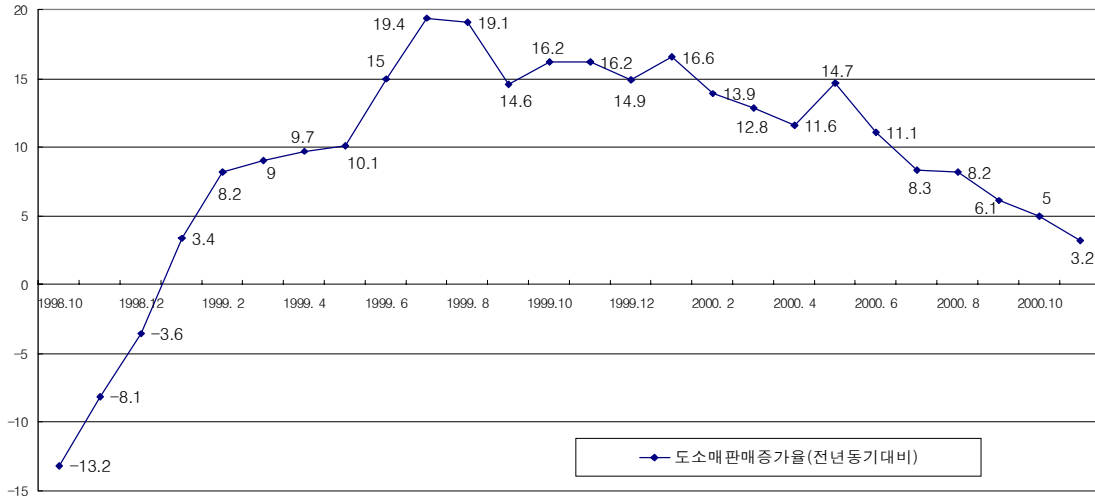
<그림 II-1>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1995년 1/4~2000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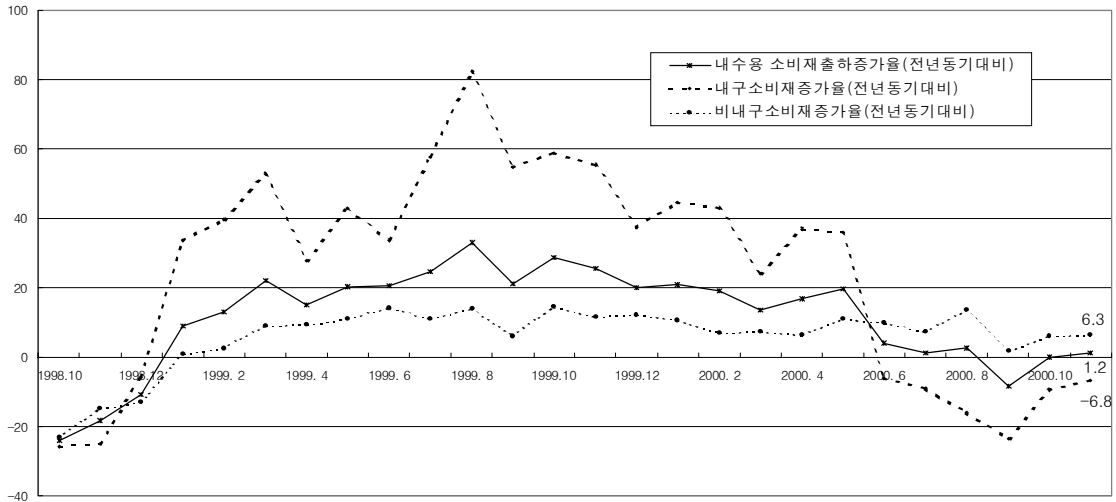
##### ○ 도소매판매와 내수용 소비재 출하 등 소비관련지표 둔화추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도소매판매와 내수용 소비재출하 증가율이 2000년 6월 이후 둔화되기 시작
  - 11월 현재 도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11월 현재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그림 II-2> 도소매 판매 증가율 (1998. 10~2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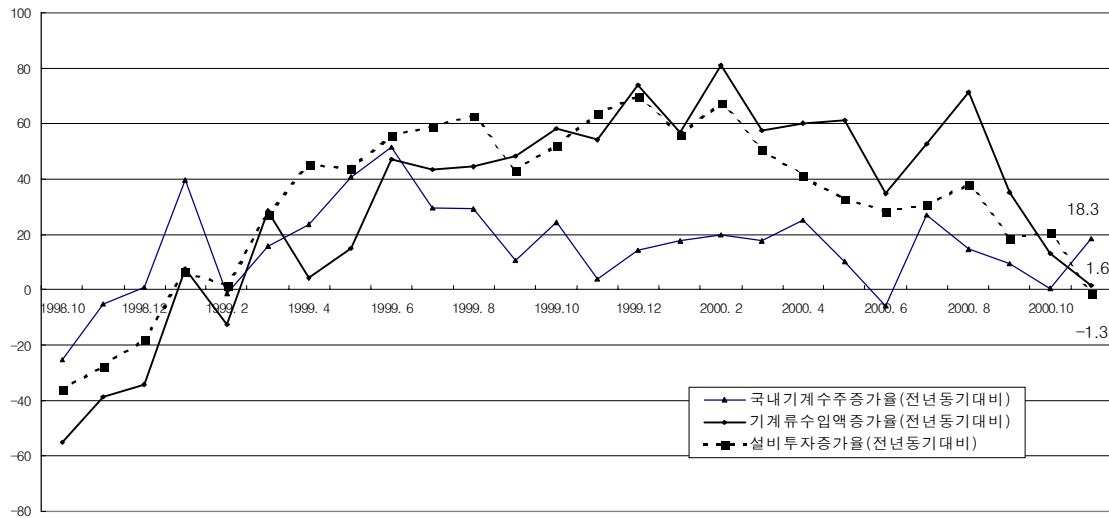
<그림 II-3> 내수용 소비재 출하 증가율 (1998. 10~2000. 11)



## 나. 투자

- 설비투자는 2000년 3월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감소세(-1.3%)로 전환
  - 기계류수입액증가율은 2000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1.6% 수준(전년동월대비)
  - 국내기계수주증가율 역시 8월 이후 둔화추세였으나 최근 11월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증가로 비교적 높은 18.3% 수준(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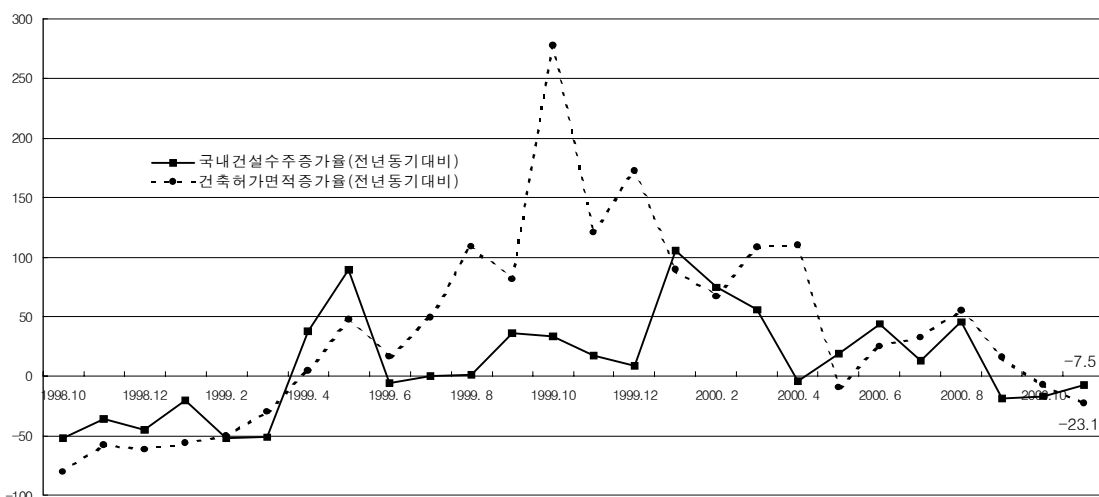
<그림 II-4> 설비투자 증가율 (1998. 10~2000. 11)



○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양상

- 국내 건설수주는 최근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7.5% 감소
- 건축허가면적은 비교적 낮은 99년 4/4분기에 가장 활발하다가 2000년 5월 이후 다시 둔화되어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3.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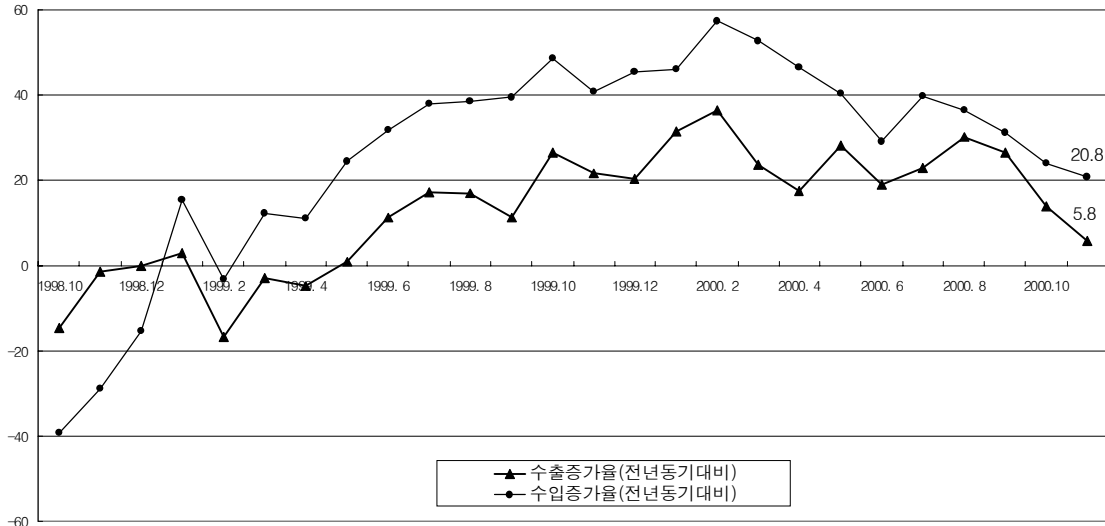
<그림 II-5> 건설투자 증가율 (1998. 10~2000. 11)



## 다. 수출입

□ 수출입동향

<그림 II-6> 수출입증가율 (1998. 10~2000. 11)



### ○ 수출 호조지속되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

- 11월중 수출은 150.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150억 달러대를 유지하였으나 수출증가율은 5.8%로 전년동기대비 다소 둔화
-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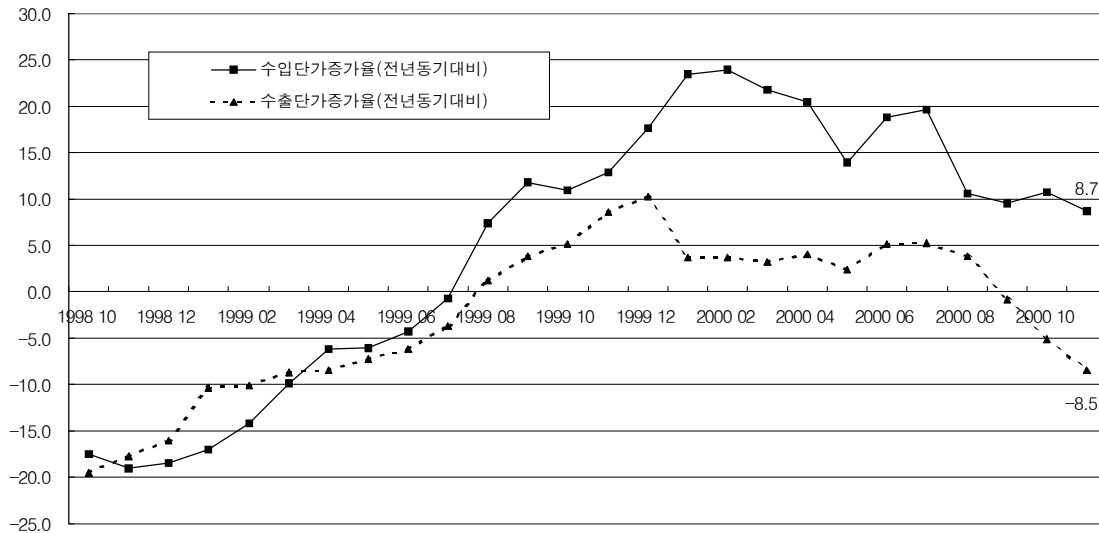
- 99년 수출호조에 따른 상대적 영향
- 선박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대우자동차 부도로 수출차질이 발생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컴퓨터 부분품의 재고누적으로 수출단가 하락

### ○ 수입 안정세 유지하며 증가율 둔화(11월 : 2000년 최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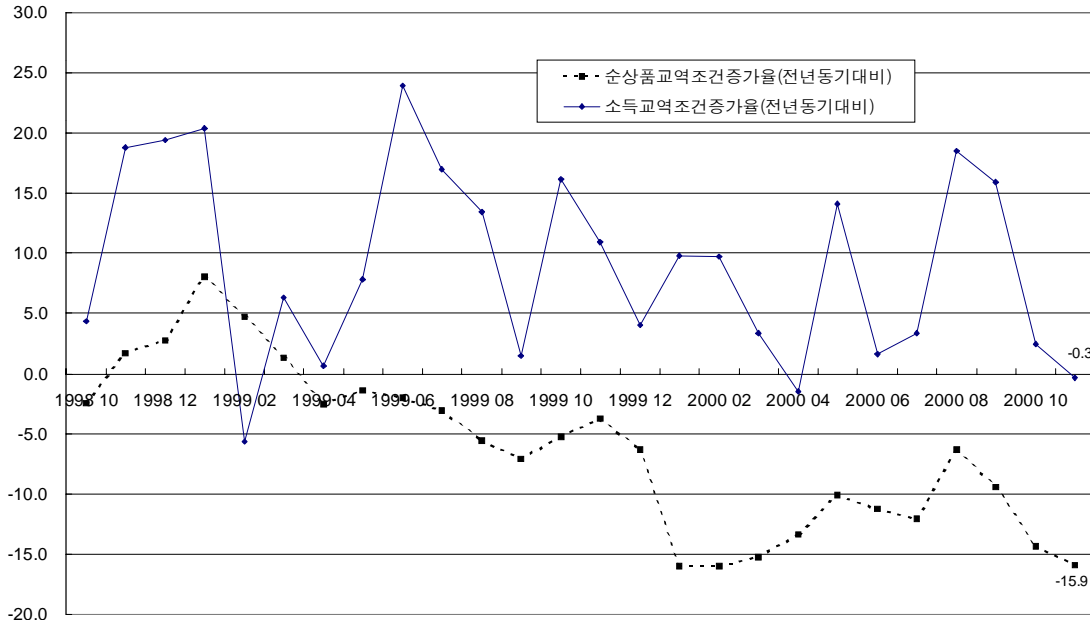
- 11월 중 수입은 20.8% 증가한 141.7억 달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 3/4분기 이후 내수경기 둔화,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세 둔화

□ 교역조건 동향

<그림 II-7> 수출입단가증가율 (1998. 10 ~ 2000. 11)



<그림 II-8> 교역조건 증가율 (1998. 10 ~ 2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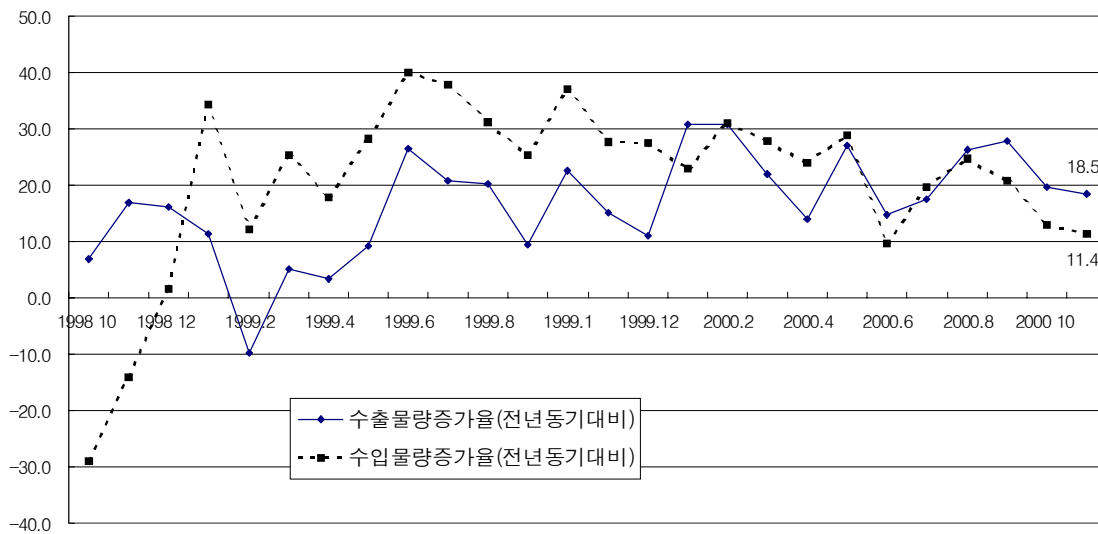
○ 순상품교역조건 악화

— 반도체가격 하락, 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입단가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수출단가는 하락하는 추세

- 11월중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67.8로 전년동기대비 15.9% 악화  
· 수입단가가 8.7% 증가한 반면 수출단가는 8.5% 하락
- 순상품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를 통해 개선 추세를 유지해오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월중 157.1로 4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악화
- 이러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대내적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기인한 소비 위축 심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균형환율 인상요인으로 작용
- 교역조건의 악화는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유가상승에 기인

- 최근 수출입물량 증가율은 둔화됨.
  - 11월중 수출물량증가율은 11.4%
  - 11월중 수입물량증가율은 18.5%

<그림 II-9> 수출입물량 증가율 (1998. 10 ~ 2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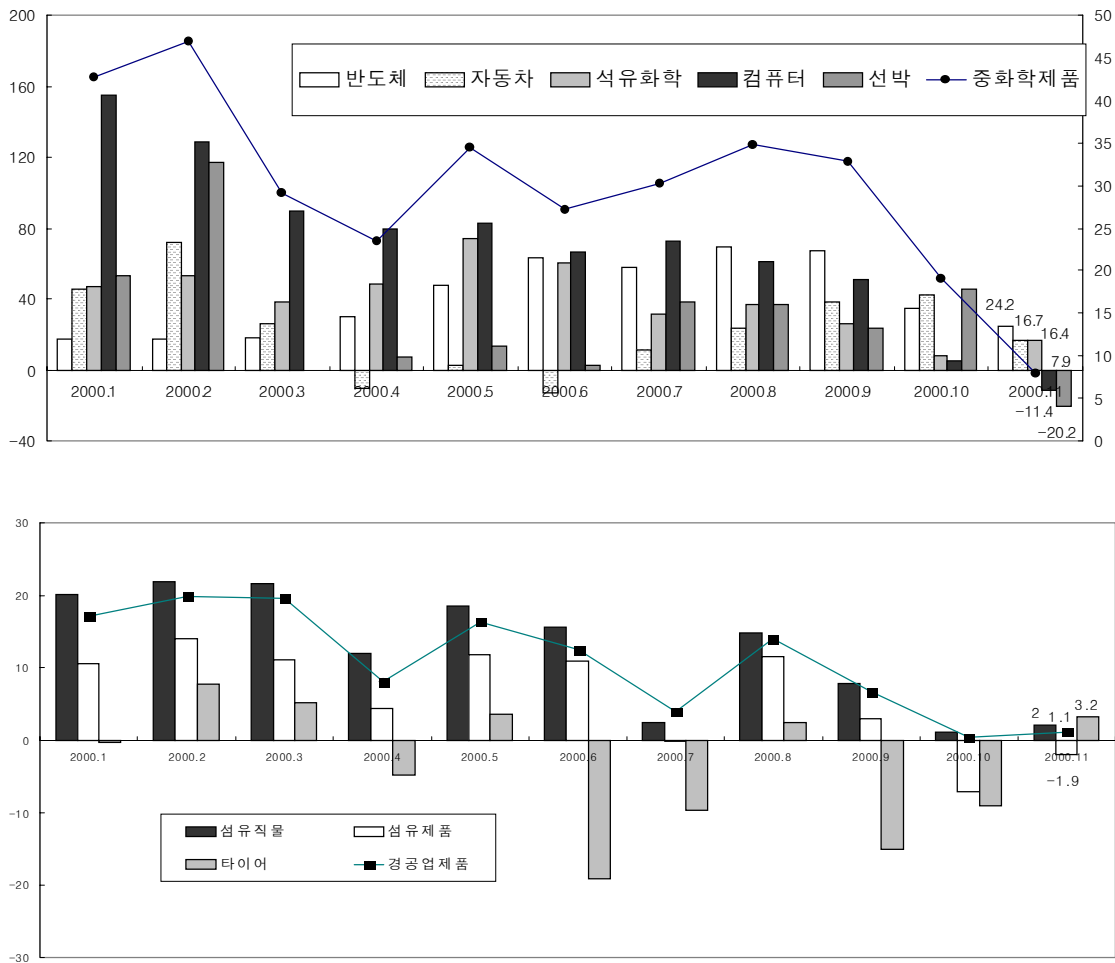
- 품목별 · 지역별 동향 (11월 자료 : 11.1~11.20)

- 품목별 수출동향

- 중화학 제품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3/4분기이후 증가율은 둔화

— 경공업 제품은 99년 수출호조에 따른 상대적 영향 및 섬유류 수출둔화로 다소 부진

<그림 II-10> 품목별 수출증가율 (2000. 1 ~ 2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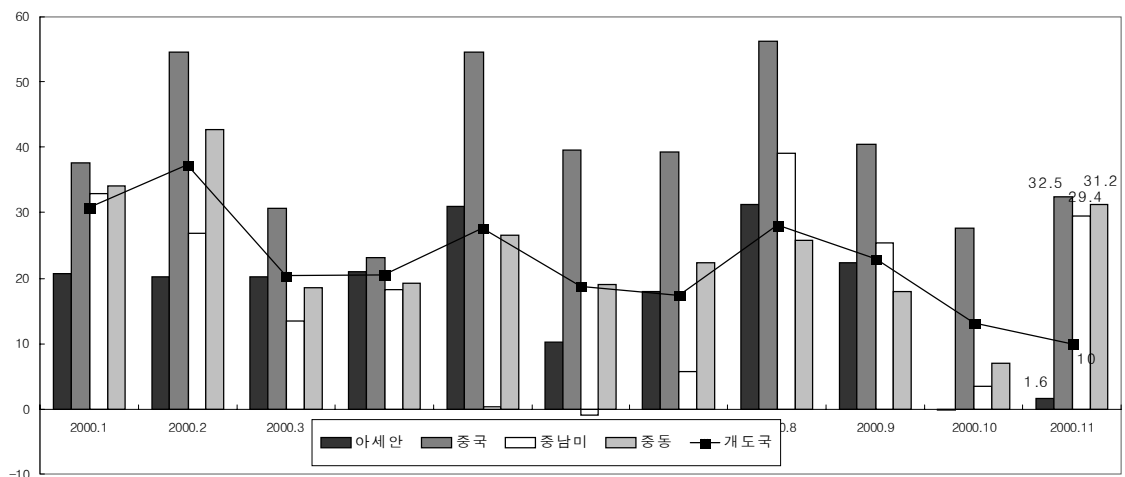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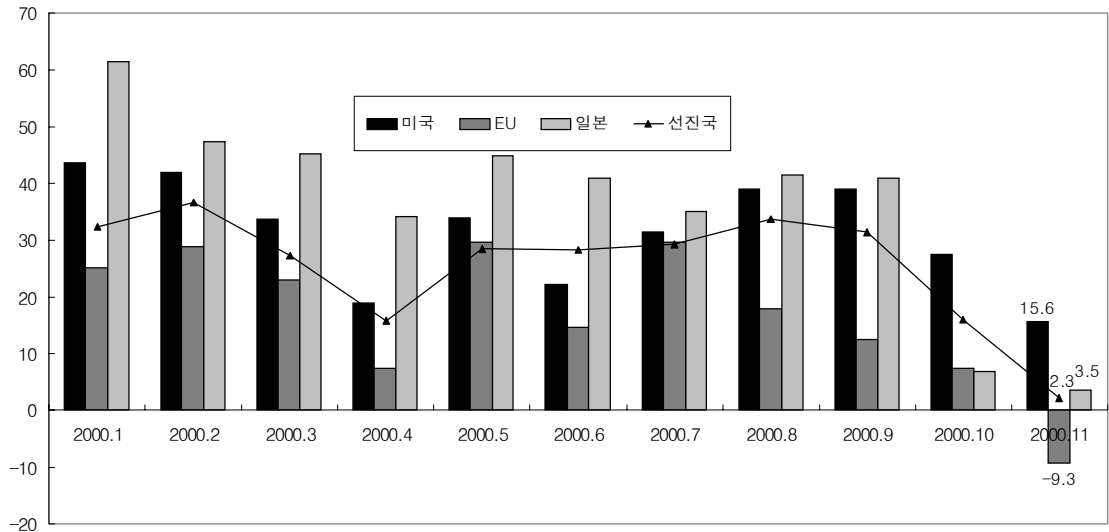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동향

—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10월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전년도 수출호조에 따른 상대적 영향
- 하반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경기부진
- 아세안지역 수출둔화는 통화가치 불안,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지역 반도체 수출 감소 등에 기인

- 1~11월말까지 지역별 수출 증가 기여도는 선진국 지역의 수출증가 기여도가 52.4%로 개도국 지역의 수출증가 기여도 46.6%를 다소 앞섬
- 선진국 지역에서는 미국지역의 수출증가 기여도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개도국 지역에서는 중국지역의 수출증가 기여도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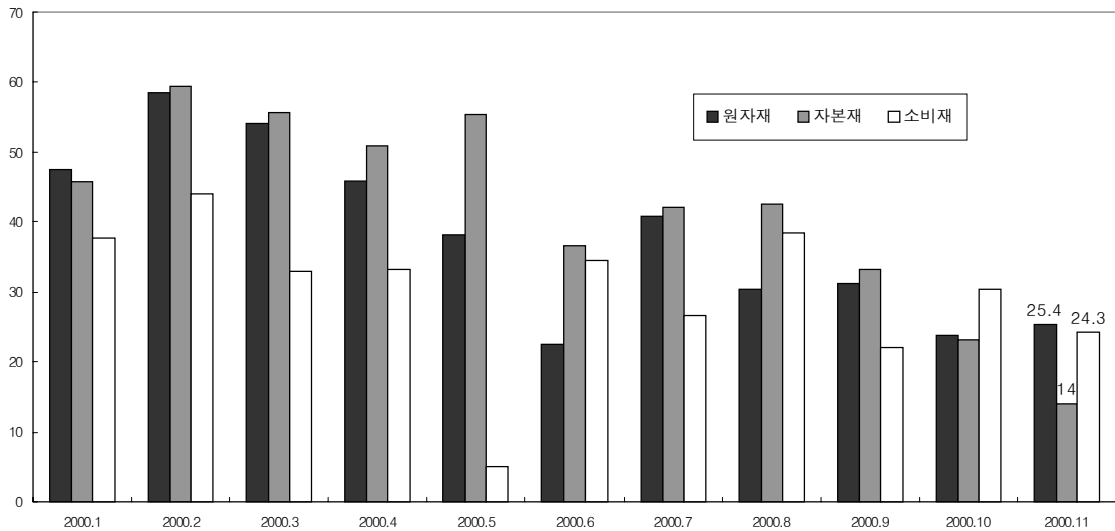
<그림 II-11> 지역별 수출증가율 (2000. 1 ~ 2000. 11)



○ 용도별·품목별 수입동향

- 11월 중 원자재 수입증가율은 10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소비재 수입증가율은 10월보다 다소 하락, 자본재는 10월의 23.1%에서 14.0%로 크게 하락
  - 1~10월 중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던 에너지의 수입증가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은 25.4%로 나타나 상반기에 비해 안정됨.
  - 상반기 중 50%대의 증가세를 기록하던 자본재는 최근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11월중 14.0% 증가에 그침.
  -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월별 수입증가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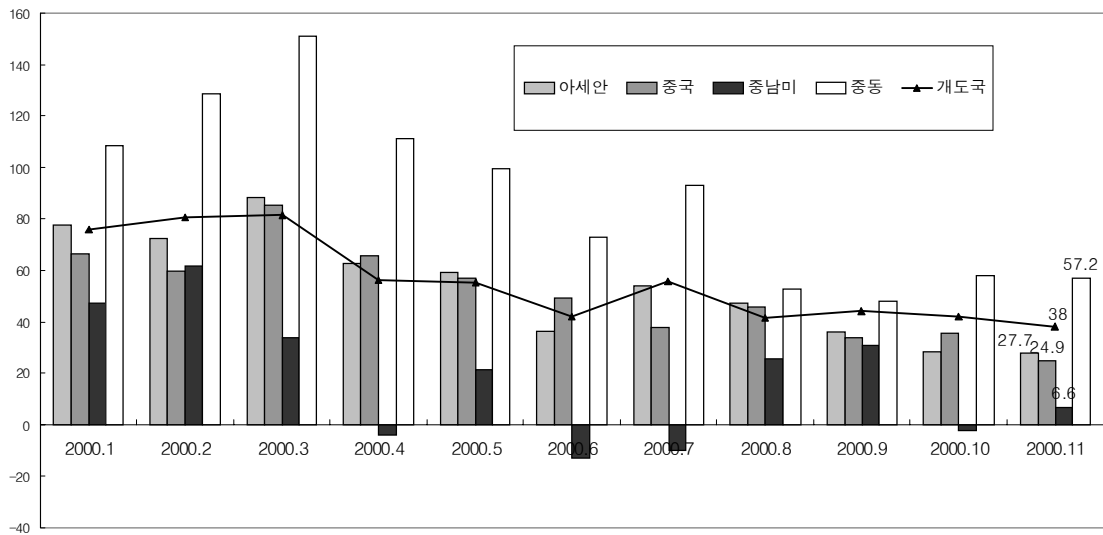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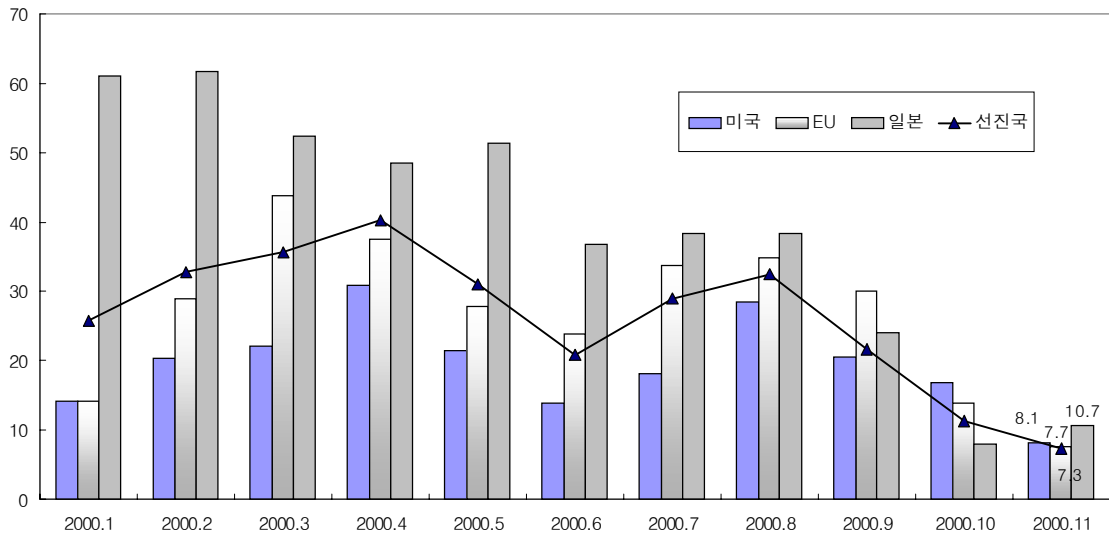
<그림 II-12> 용도별 수입증가율 (2000. 1 ~ 2000. 11)



○ 지역별 수입동향

- 11월중 대선진국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반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8.0%의 증가율 시현

<그림 II-13> 지역별 수입증가율 (2000. 1 ~ 2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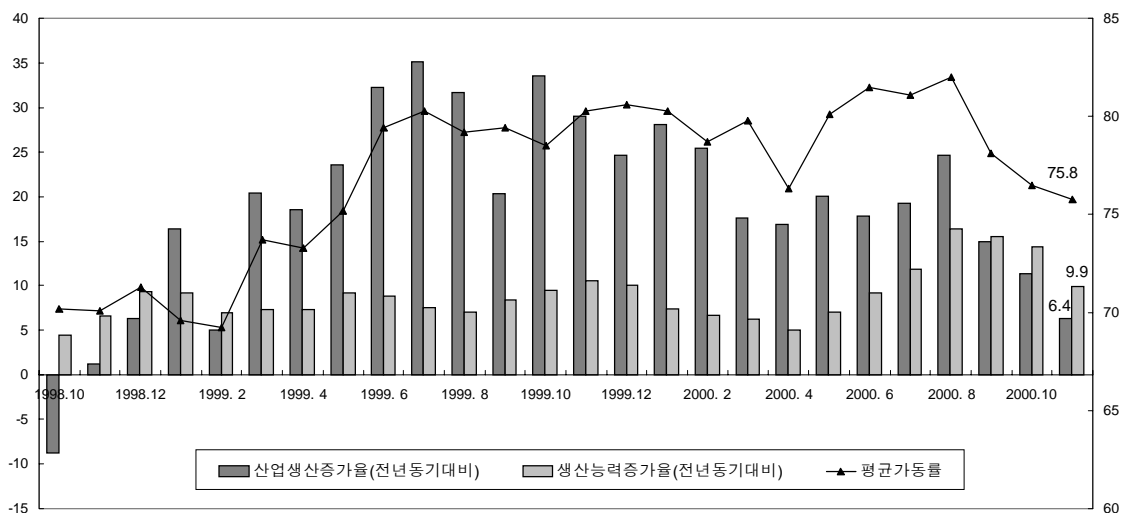
## 2. 총공급

### 가. 생산

○ 내수 침체 및 수출증가율 둔화로 생산 증가율 부진

- 9월 이후 반도체가격 하락 및 내수부진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4% 증가
- 9월 이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자동차 및 반도체 등의 생산둔화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림 II-14>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 평균가동률 (1998.10~2000.11)



### 나. 출하 및 재고

○ 출하 증가율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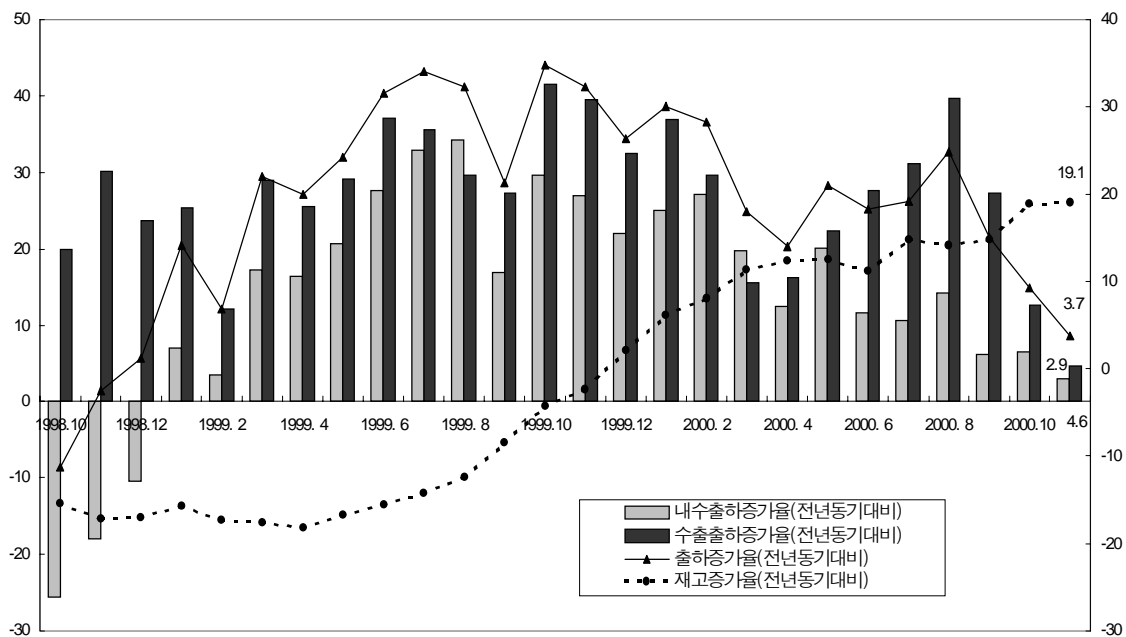
- 9월 이후 출하증가율 둔화 추세
  - 내수출하는 주가하락 및 경기둔화 조짐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 수출출하도 최근 들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등의 저조함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음.

- 11월중 생산자제품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내수출하는 2.9% 증가
  - 수출출하는 4.6% 증가로 둔화됨.

○ 재고는 2000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지속

- 9월 들어서는 내수 뿐 아니라 수출도 동시에 부진해짐에 따라 재고증가세가 가시화됨.
- 11월 현재 생산자제품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
- 재고증가로 생산활동 위축 초래

<그림 II-15>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1998.10~20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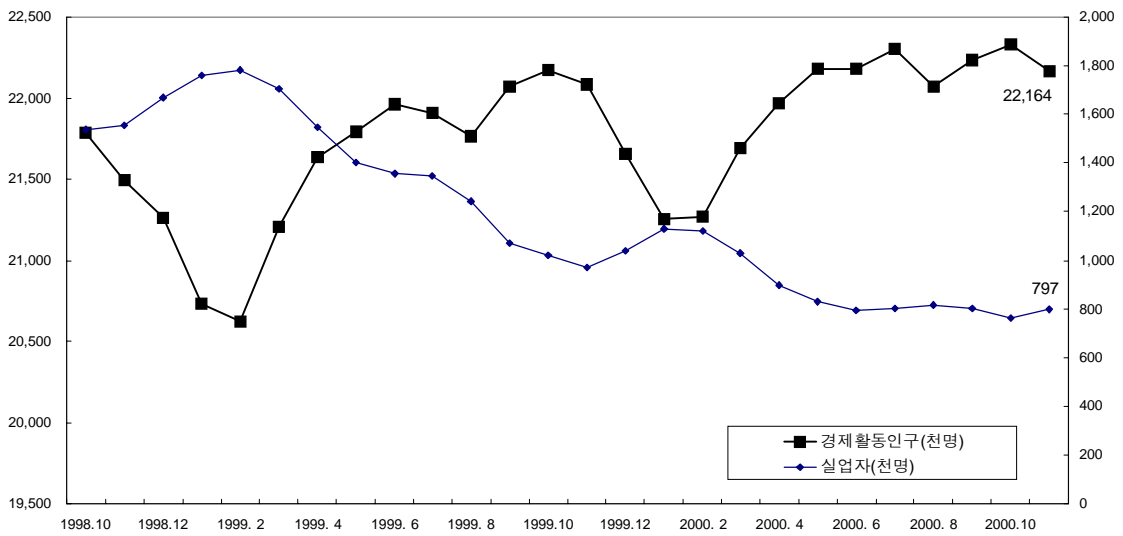


#### 다. 노동시장

□ 고용

○ 2000년 11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22,1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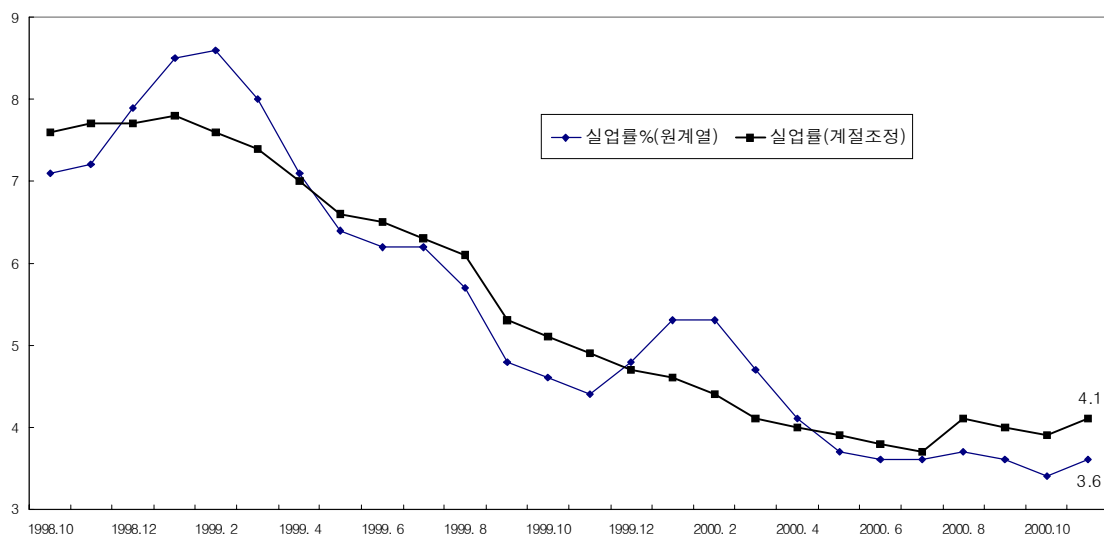
<그림 II-16> 경제활동인구·실업자 (1998.10~2000.11)



○ 2000년 상반기까지는 실업률이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추세로 전환

— 2000년 11월 중 실업률은 3.6%로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안정세 유지(계절조정 실업률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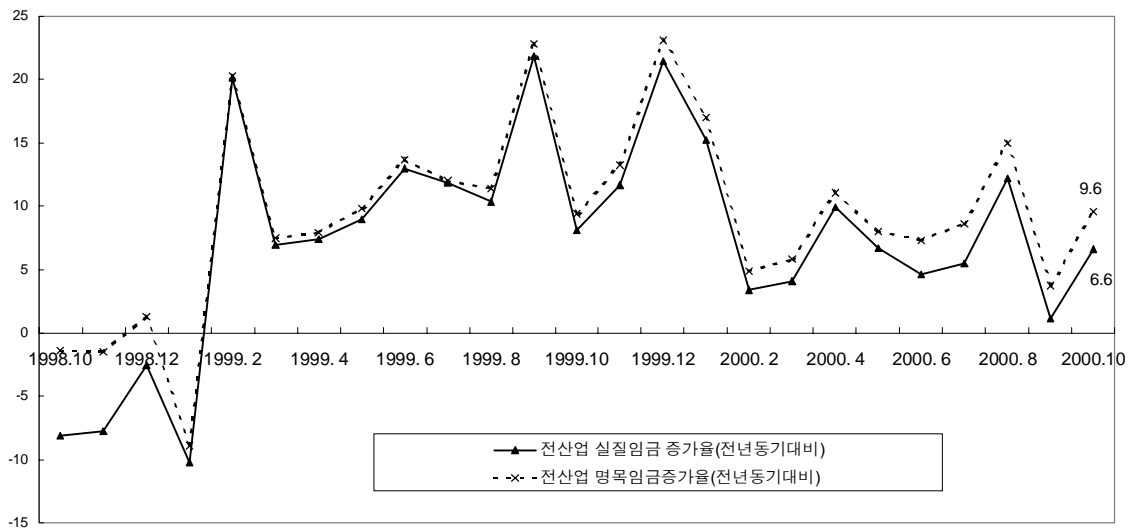
<그림 II-17> 실업률 (1998. 10~2000. 11)



□ 임금

- 2000년 들어서는 경기둔화로 전년도에 비해 임금상승률 둔화
  - 2000년 1월~9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의 명목상승률은 8.8%로 99년의 10.6%에 비해 둔화
  - 동기간 중 실질임금상승률 역시 99년의 9.9% 증가율에 비해 둔화되어 6.6% 기록

<그림 II-18> 임금상승률 (1998. 10~20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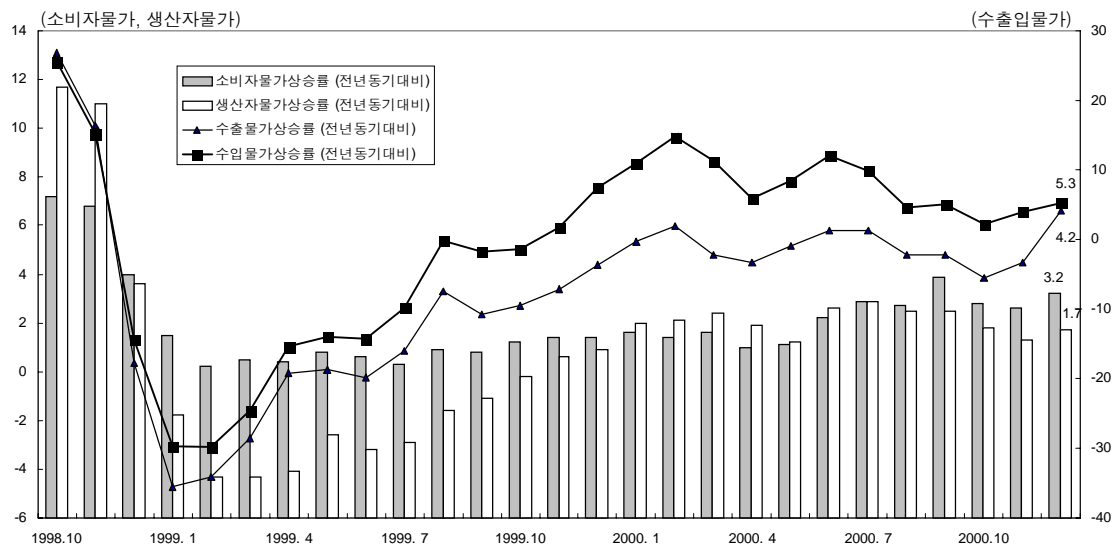


3. 물가

- 2000년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3% 상승하여 99년의 0.8% 상승에 이어 물가 안정세 지속
  -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3%중 ① 석유류(기여도 0.68%p), ② 의보수가 (0.39%p), ③ 농축수산물(0.28%p)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물가는 0.95%p 상승
  - 12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2000년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2.0% 상승

- 12월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2000년 수출물가는 연평균 1.0% 하락한 반면 수입물가는 7.6% 상승
  - 수출물가는 원화 환율이 연평균으로 크게 내린데다 반도체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데 기인하여 하락
  - 수입물가는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OPEC의 감산 영향으로 크게 오른데 주로 기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
  - 12월중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수입물가는 5.3% 상승

<그림 II-19> 물가상승률 (1998. 10~2000. 12)



### III.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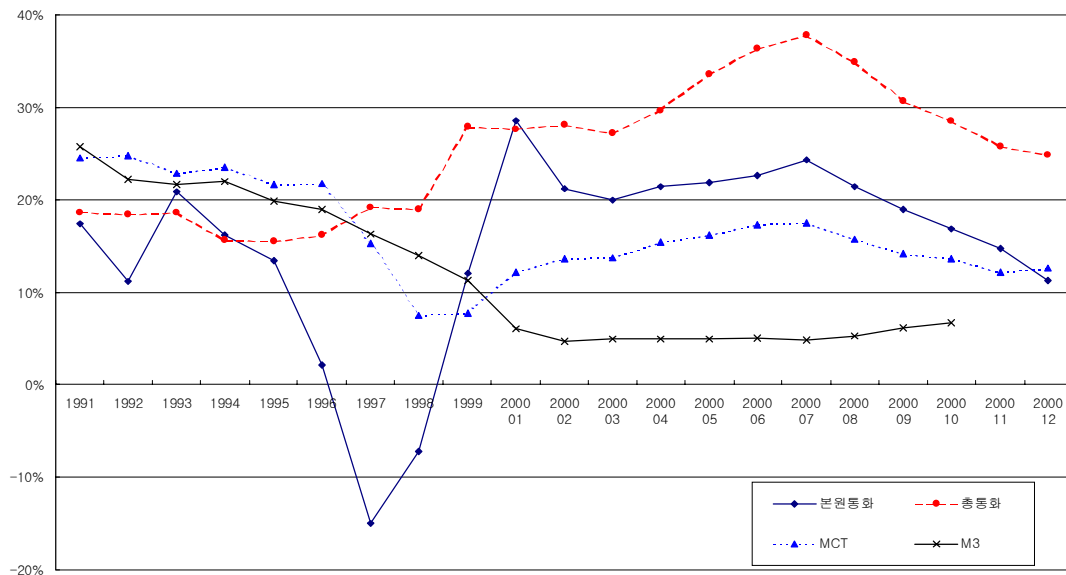
#### 1. 원화자금 시장

##### 가. 자금수급

- 본원통화 증가율은 2000년 7월이후 감소세 지속
  - 2000년 1월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던 본원통화 증가율은 7월들어 한은이 시중 유동성 흡수에 나섬에 따라 점차 감소함.
- 2000년 7월이후 본원통화 증가율 감소와 함께 총통화 및 MCT도 지속적인 감소세
- 2000년 중 M3증가율은 6%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은행신탁계정, 투신권의 자금유입 미흡으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7월 이후 비과세 상품 채용에 따라 일부 개선되는 추세

<그림 III-1> 통화량 추이

( 전년동기대비, 단위 : % )



자료 : 한국은행 웹사이트

## 나. 자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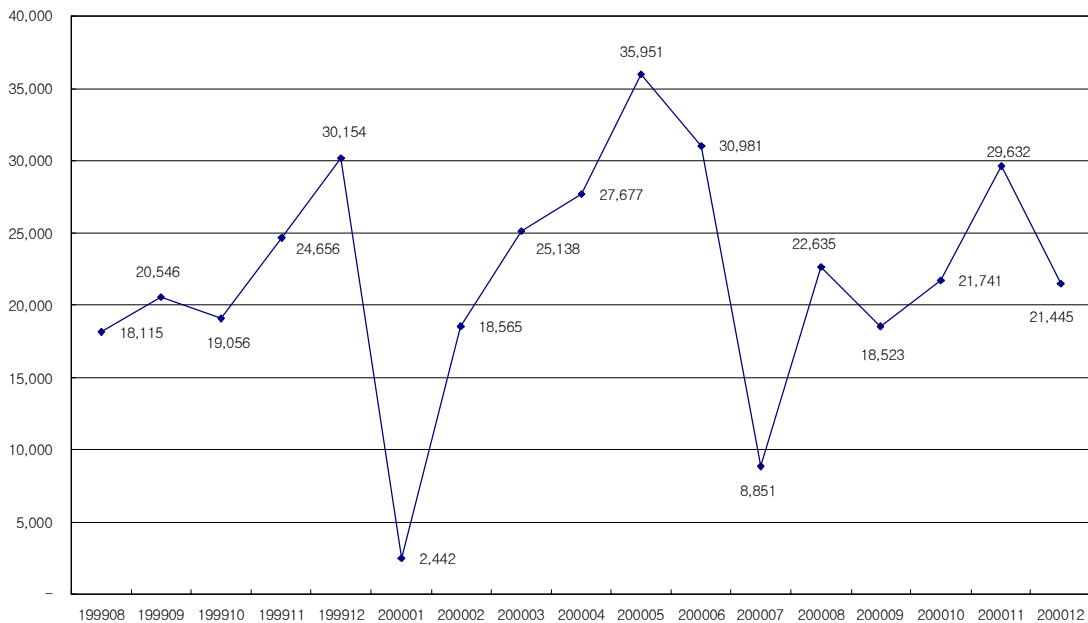
### 1) 간접금융현황(은행대출)

#### ○ 2000년 중 가계대출은 증가세 유지

— 경기회복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노력으로 지속적인 증가 시현

<그림 III-2> 가계대출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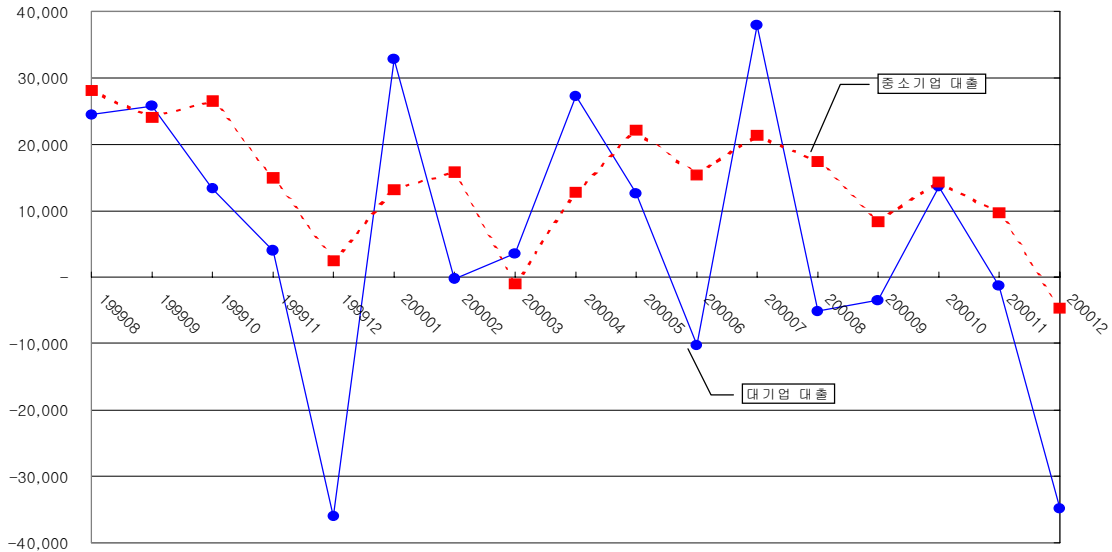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 ○ 2000년들어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점차 축소됨.

- 2000년 초 자기자본비율 문제 등으로 대출을 축소한 이후 중반까지 점차 대출 증대.
- 2000년 후반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신용불안 등으로 기업대출을 축소
- 2000년 말에 금융시장 불안 심화와 기업의 부채관리 및 은행의 BIS비율관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출 감소
  - 연말 상황과 익년초 재차입의 순환 특징

<그림 III-3> 기업대출(신탁포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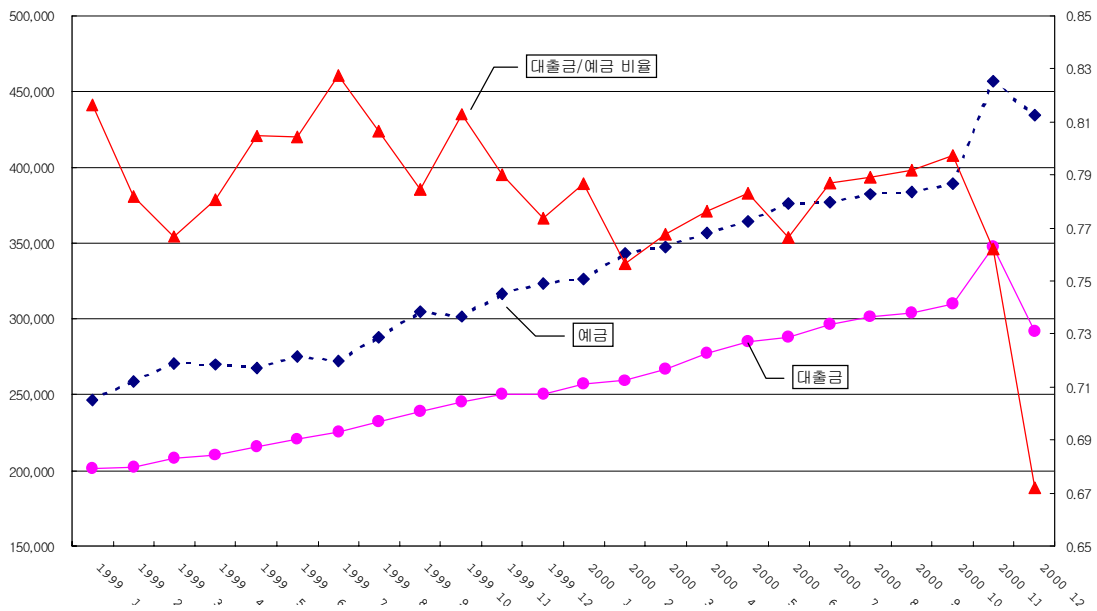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 은행의 예금과 기업대출 총액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연말 자금수요와 기업들의 부채비율 관리로 2000년말 급격히 하락함.
-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도 이에 따라 크게 하락

<그림 III-4> 예금 및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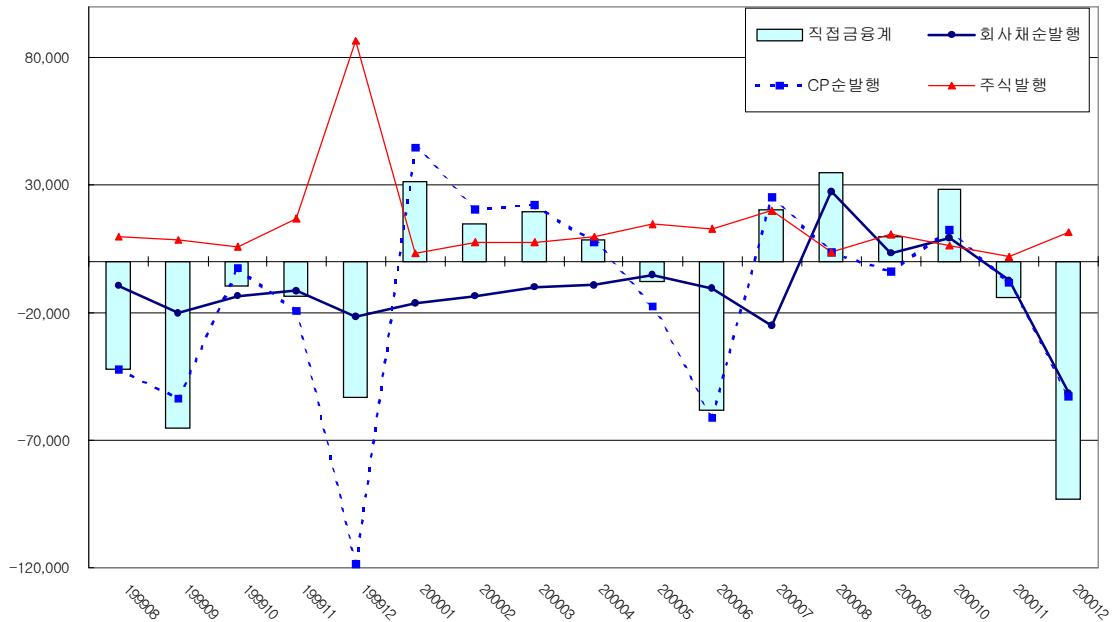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웹사이트

2) 직접금융현황(기업의 자금조달)

- 2000년 중 기업의 직접 금융은 6월과 12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지속됨.
  - 6월과 12월에 은행들의 BIS비율 관리와 기업들의 부채관리 차원에서 CP의 대량 상환 발생
  - 비과세 상품 허용과 이를 통한 CP매입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대기업관련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의 CP발행이 증가세를 보임.

<그림 III-5>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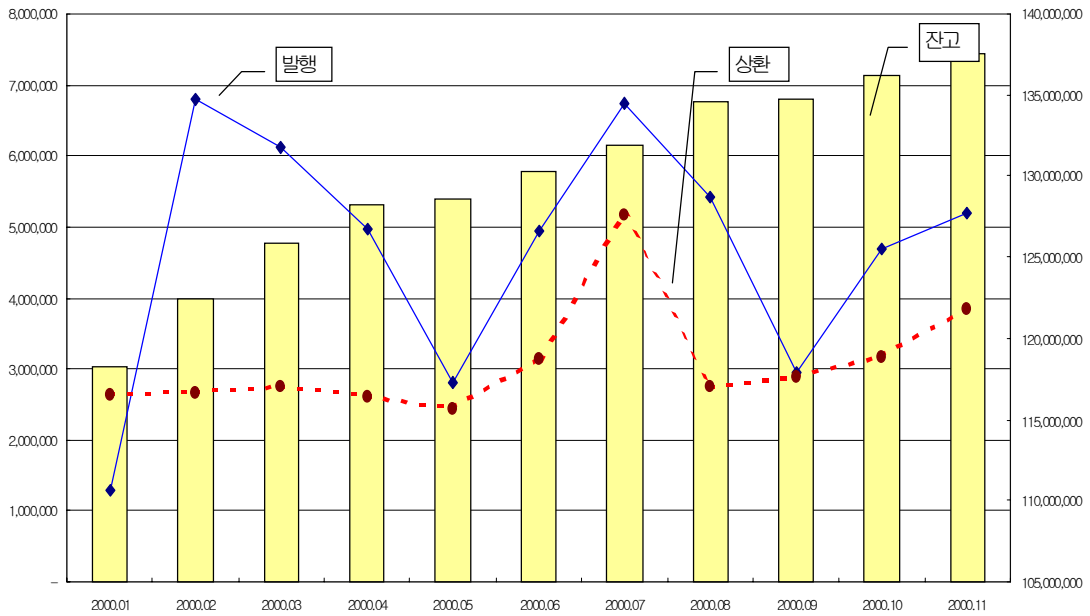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 2000년 중 회사채는 순상환 위주
  - 2000년들어 자금시장이 악화되면서 비우량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해짐.
  - 이에 따라 올 한해 동안 ABS발행이 두드러짐.

<그림 III-6> 회사채 발행 및 상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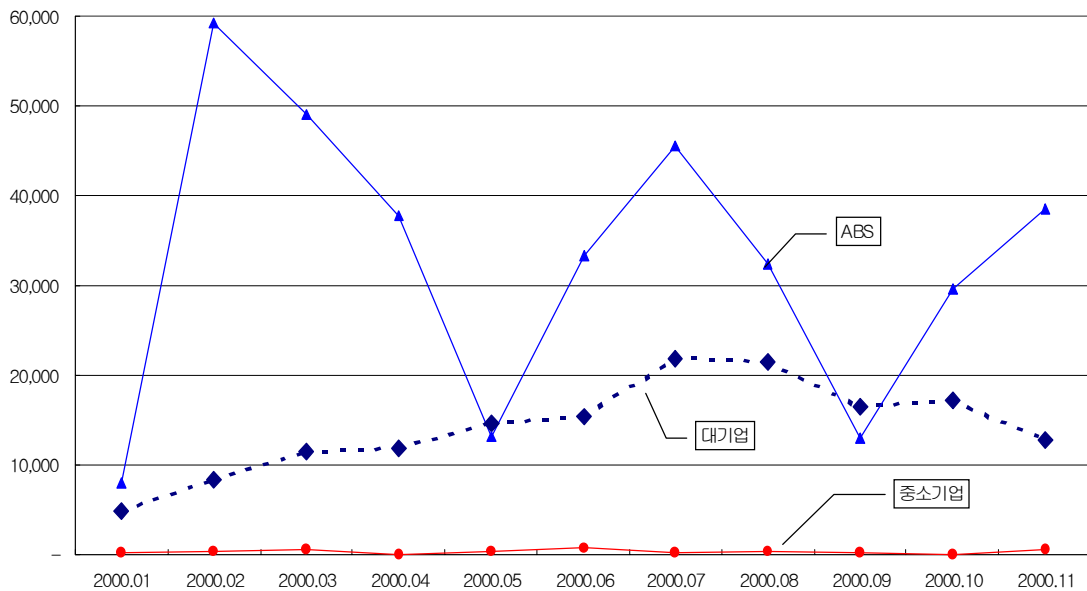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료 :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그림 III-7> 회사채 종류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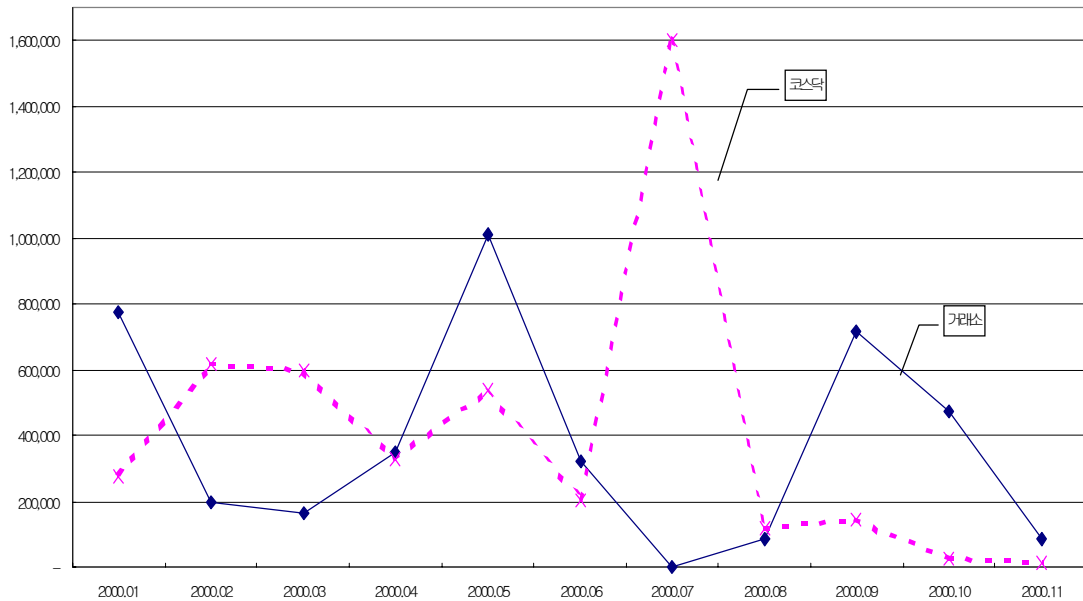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되고 있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점차 자금조달액이 감소

<그림 III-8> 유상증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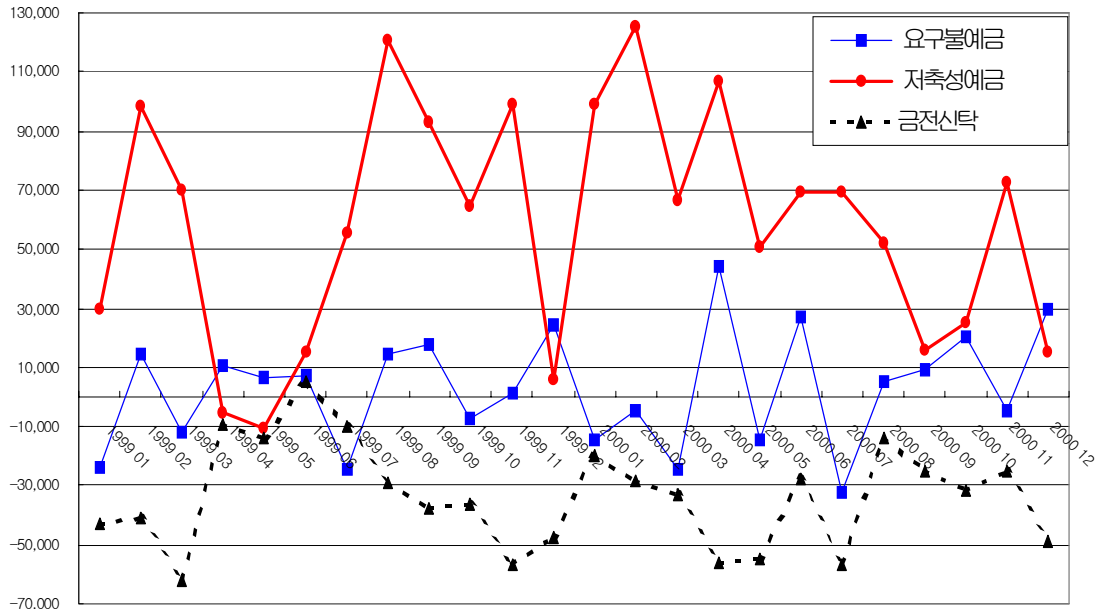
- 은행대출 및 Primary CBO발행 등을 통해 어려운 기업자금사정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자금경색 지속
  - 2001년 1/4분기까지 27.6조원 수준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

### 3) 금융부문 수신현황

- 은행예금은 정기예금에서 요구불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
  -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요인 등으로 자금의 단기 유동화가 심화됨.
- 은행신탁은 지속적인 유출을 보임.

<그림 III-9> 은행 수신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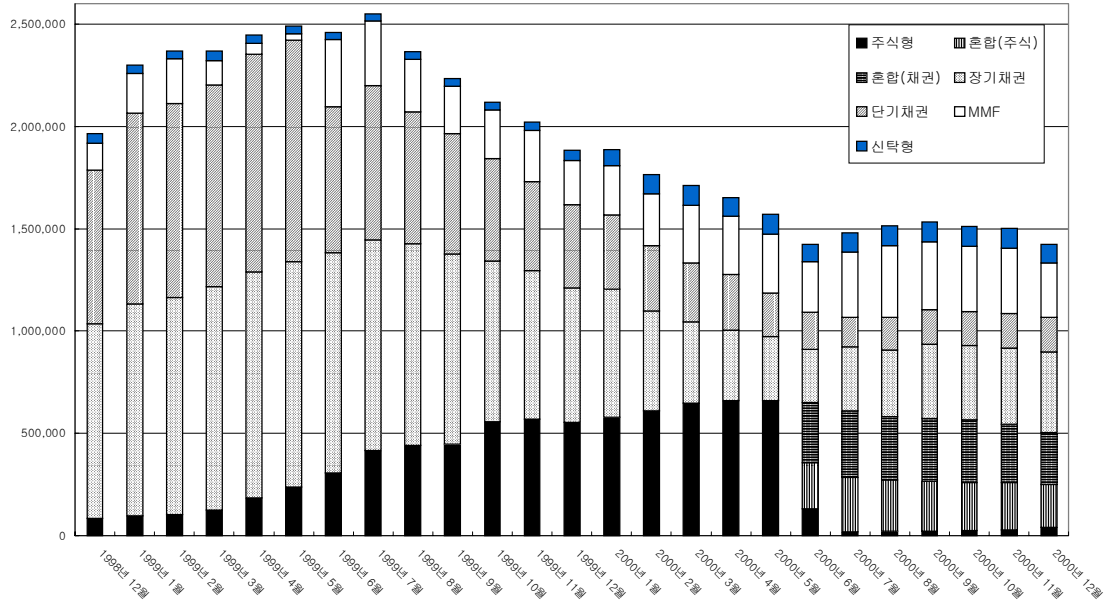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 투신사 수신은 1999년 중반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채권형 펀드는 1999년 중반이후 급격한 수신고 감소를 보였으나 2000년 중반이후 비과세 신탁 허용 등에 따라 부분적인 수신고 증가
  - 2000년초 하이-일드, CBO 등의 혼합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증가 하였으나 중반이후 지속적인 환매로 순유출
  - 2000년 말부터 정부의 연기금을 통한 주식매입정책에 힘입어 순수주식형의 자금유입 증가

<그림 III-10> 투신사 수신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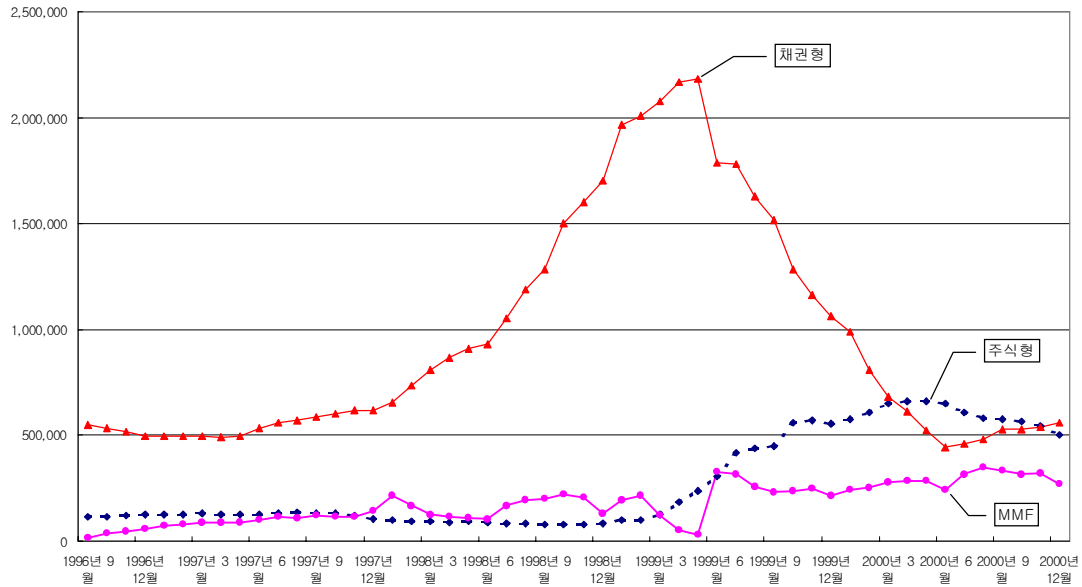
( 단위 : 십억원 )



자료 : 투자신탁협회 웹사이트

<그림 III-11> 펀드 종류별 수신고 비교

(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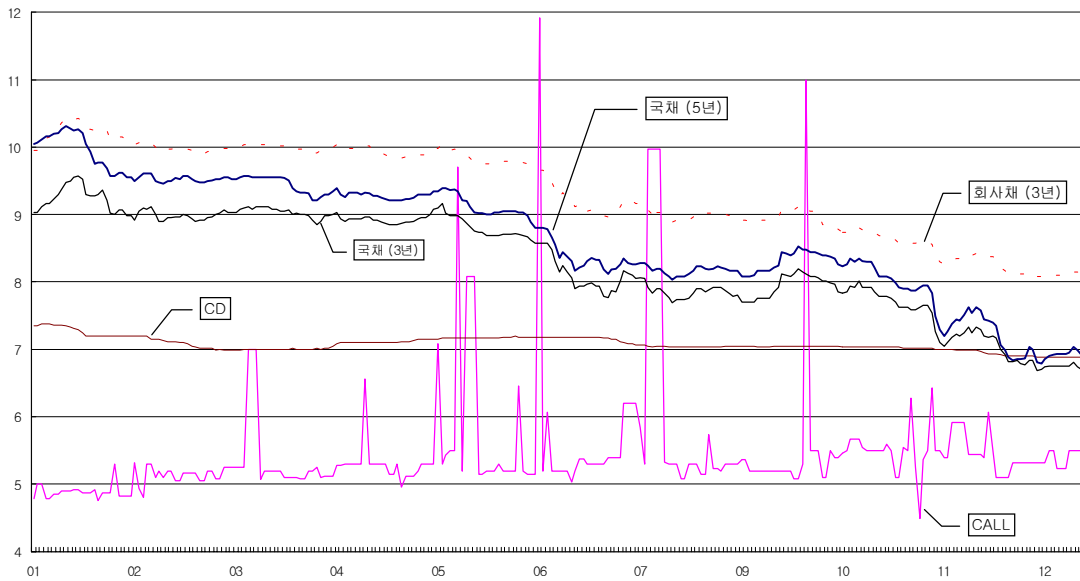
자료 : 투자신탁협회 웹사이트

다. 채권수익률

- 2000년 채권수익률은 하향세 지속
  - 연초 상승기미를 보이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연말엔 큰 폭의 하향세를 시현
- 장단기 채권수익률 차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
- 2000년 말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하향전환으로 인하여 안전자산으로의 운용이 집중됨에 따라 채권시장에서의 딜링장세 심화
  - 채권수익률의 내재적 변동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금융기관들의 안전자산 선호는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불러 우량회사채 수익률도 하향세
  -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비우량채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어 신용등급간의 스프레드는 확대

<그림 III-12> 채권수익률 추이

( 단위 : % )



자료 :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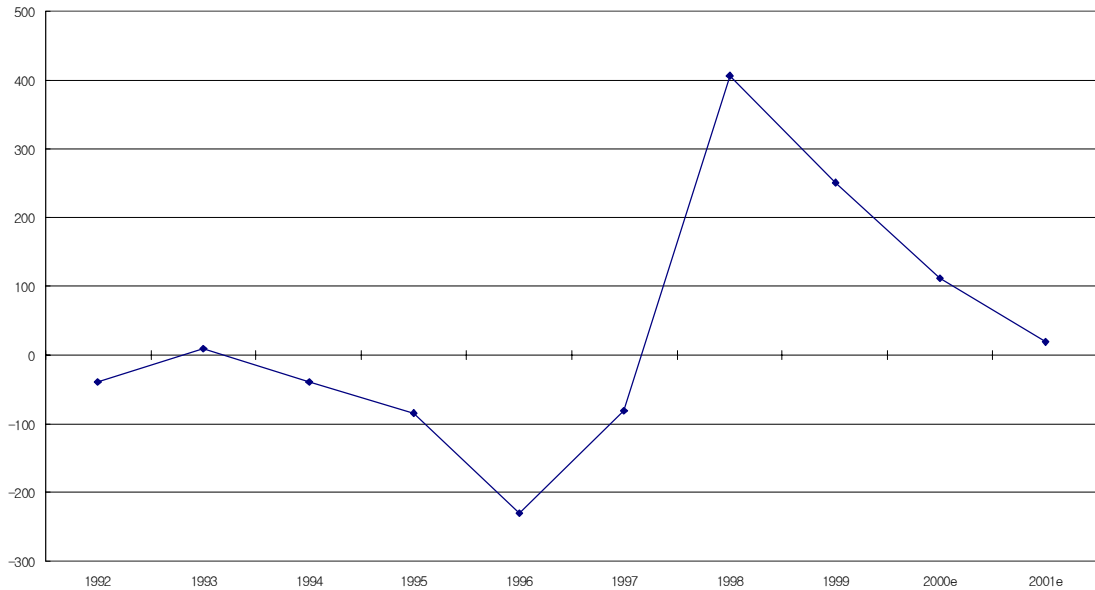
## 2. 외화자금시장

### 가. 국제수지 현황

- 2000년 경상수지는 111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됨.
  - 전년의 250억 달러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
  - 이는 올 한해에 수출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입차가 축소된데 주로 기인
  
- 2001년도 경상수지는 더욱 감소할 전망
  - 세계경기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주로 기인

<그림 III-13>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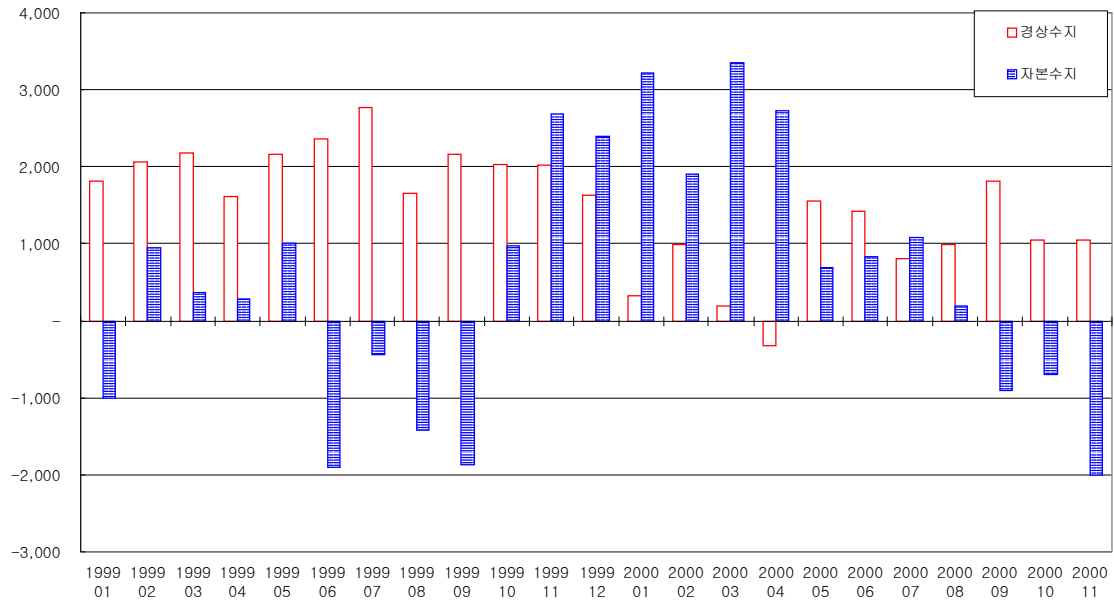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 올해 초에 최대의 순유입을 보이던 자본수지는 점차 축소되어 9월들어 순유출로 전환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 정부의 해외부실채권 상환 및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금 상환 등에 주로 기인

<그림 III-14> 최근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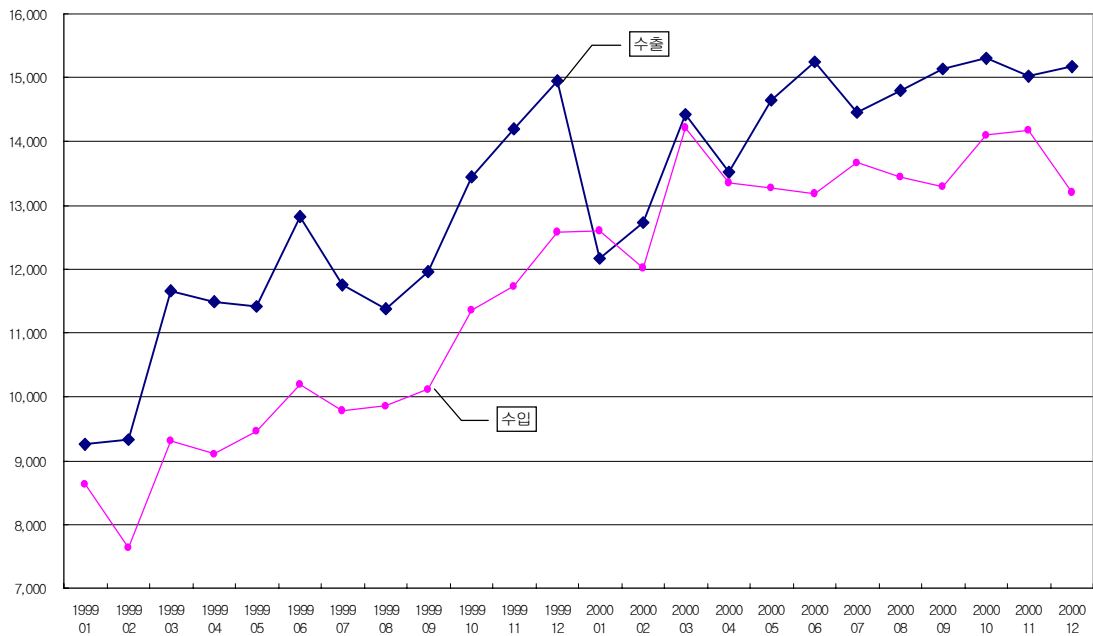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각호.

<그림 III-15>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산자부, 「수출입실적」,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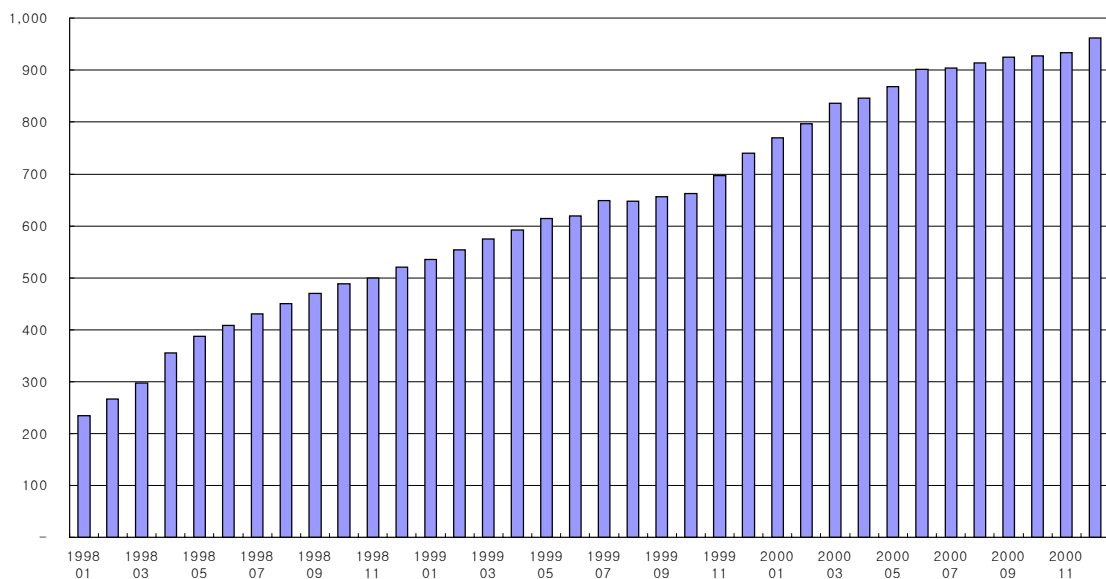
- 전년에 이어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임.
  - 전년대비 20.1% 증가한 1,726억달러 기록
  - 연말들어 수입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미국 경기의 둔화 및 반도체가 격의 하락 등으로 향후 수출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수입은 1,605억달러(전년대비 34.0% 증가)로 크게 증가
  -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및 고유가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2000년 무역수지는 약 121억 달러 흑자

## 나. 외환보유고 및 대외채무

-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62.0억달러
  - 2000년 11월말에 비해 28.6억달러 증가하였으며 1999년 12월말에 비해서는 221.5억달러 증가
  - 2000년 중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의 유입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 상환 등에 기인

<그림 III-16>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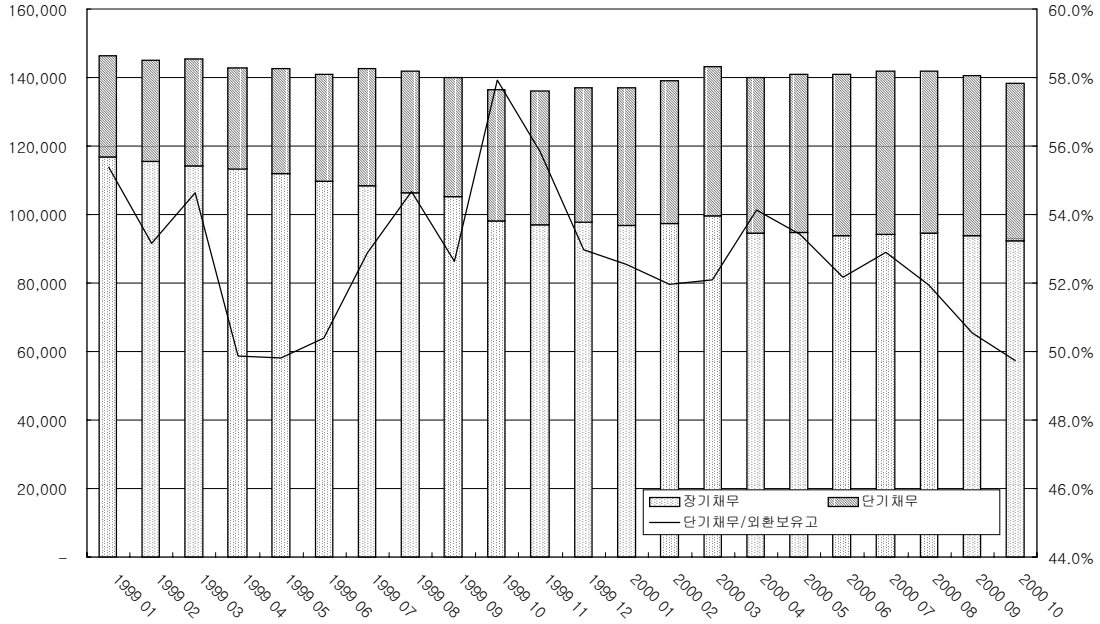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384억달러로 (2000년 10월말 현재)
  - 장기채무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채무 비율도 꾸준한 감소세 시현

<그림 III-17> 대외채무 현황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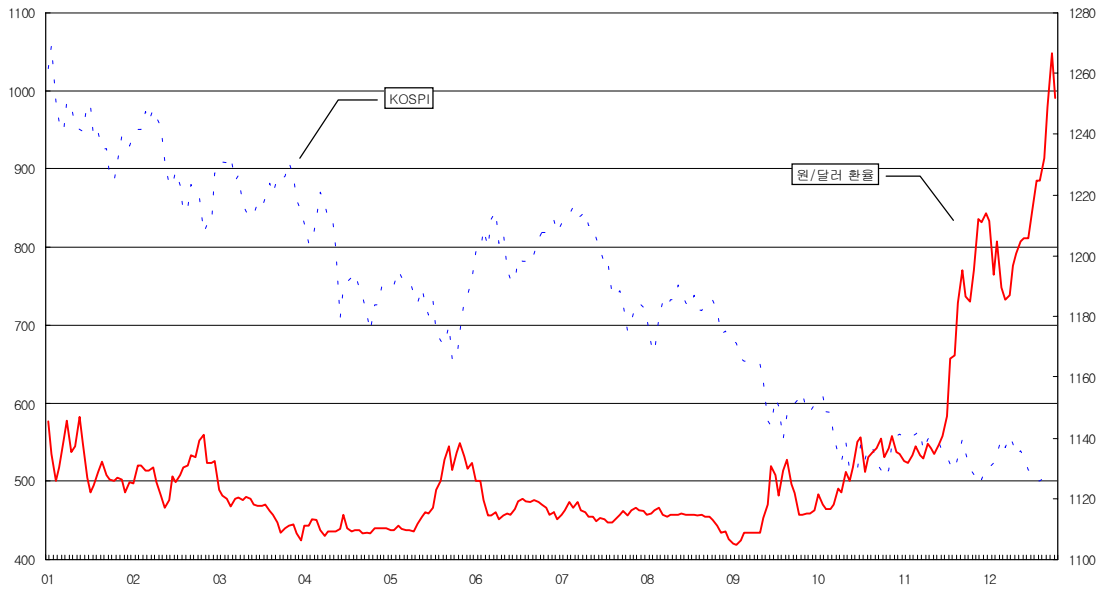


자료 : 재경부 외환제도과.

#### 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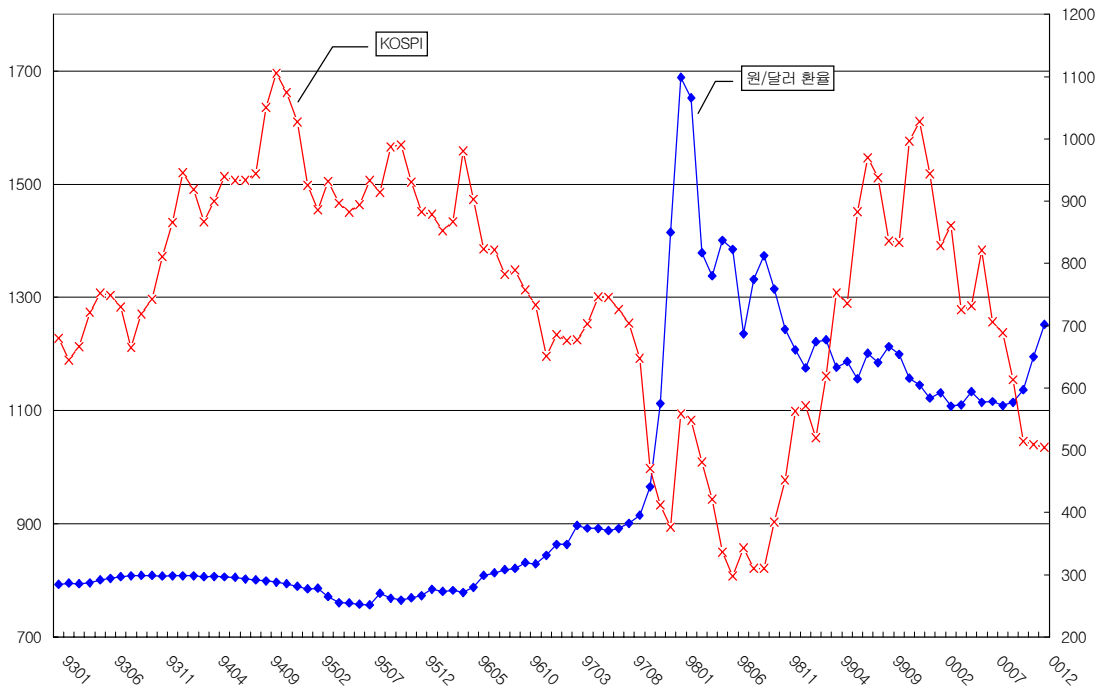
- 1999년 말부터 2000년 11월 중순까지 1,100원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던 원/달러환율은 11월 후반부터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큰 상승세를 시현
  - 특히 2000년 12월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균형환율 인상이 예상된 시점에서 환율상승이 두드러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환율급등의 주요 원인
    - 결제수요 집중 등으로 인한 외환시장에서의 초과수요
    -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 및 국내외 주가하락
    - 일본 엔화 및 대만 달러화 약세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원화약세 기대심리에 따른 달러가수요 증대

<그림 III-18> 2000년 중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Datastream

<그림 III-19> 원/달러 환율 장기추이 (1993 ~ 2000)



자료 :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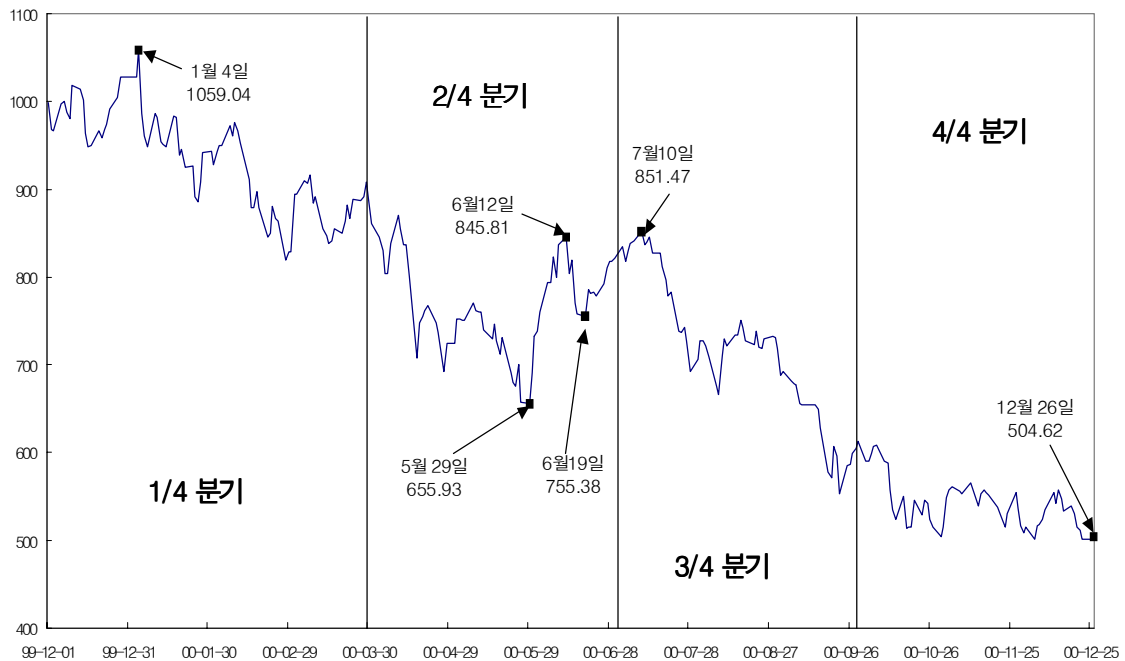
## IV. 한국경제의 시장가치 - 주가동향

### 1. 지수 동향

#### 가. 거래소

○ 2000년 말(12월 28일) KOSPI는 504.62p로 마감하여 연초대비 52.35% 하락

<그림 IV-1> KOSPI 추이



○ 1/4분기 중 주가는 1월 4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미국증시불안과 구조조정지연 등으로 하락국면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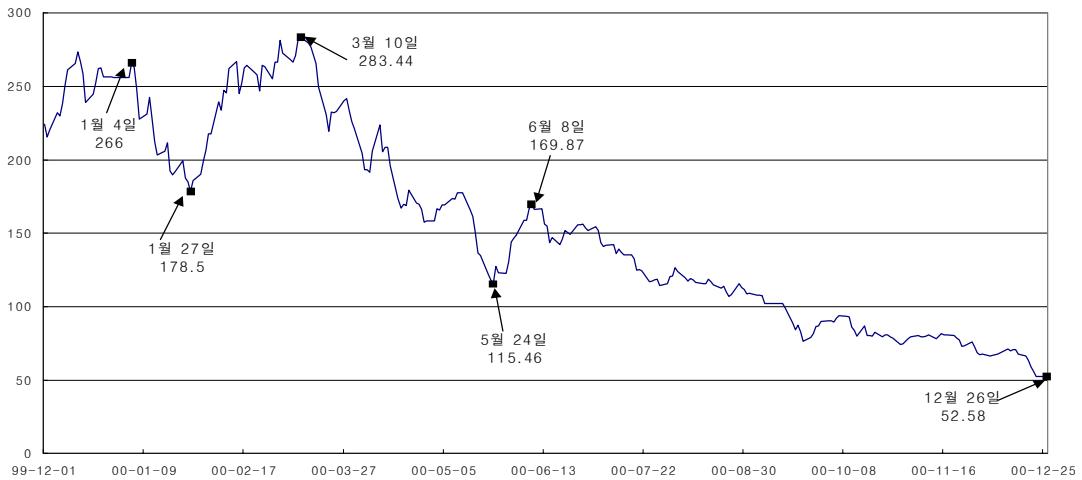
- 연초 코스닥시장의 상대적 활황에 따른 거래소시장 수급불균형
  - 2월 8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시장을 앞섬.
- 2월 8일 대우채환매대책, 2월 28일 증시균형발전방안 등으로 반짝 상승 시도

- 현대그룹 경영권분쟁,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 첨단기술주 거품론 확산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 등의 악재가 주가하락의 계기로 작용
- 2/4분기 중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시장 붕괴로 증시 대폭락
- 미국나스닥 시장 대폭락으로 4월 17일 KOSPI는 사상 최대의 낙폭 기록하여 11.6% 폭락, 서킷브레이커즈 발동
  - 4월 27일 현대그룹 유동성문제가 발생하면서 600대로 지수 하락
  - 5월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p 정도 급등
    - 3대 투신사에 대한 조기공적자금 투입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순매수, 현대그룹 경영개선 계획 발표 등에 기인
  - 6월 중순 들어 유가상승과 일부 중견대기업 자금악화설 등으로 하락세
  - 6월 19일 자금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재상승
- 3/4분기중 반도체경기논란으로 다시 급락세로 돌아섬
- 국제 반도체 현물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매도세로 돌아서 주가는 급락
    - 외국인들이 올해 월별로 유일하게 순매도를 기록한 것도 9월, 10월
    - 기관마저 10월에는 순매도를 기록해 수급불균형 심화
  -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국제 원유가마저 급등세로 돌아서 하락세 지속
  -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하면서 600선 마저 붕괴
  -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M&A 활성화 조치(9월 18일)와 정부 공적자금 40조 추가 조성발표(9월 22일) 등 주식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 4/4 분기 중엔 계속되는 자금시장불안,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 금융기관 부실 및 구조조정 지연, 회사채 집중 만기도래를 앞두고 자금시장 경색 지속

- 10월중순 이후 현대문제의 재부각과 미국증시 폭락으로 더욱 하락
  - 현대건설 1차 부도가 발생하며 장중 500선 아래로 하락하기도 함.
- 동아건설 법정관리, 대우차 최종부도, 부실퇴출기업 명단 발표가 잇따르면서 500~550 사이에서 횡보
- 국제 유가급등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현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외상황마저 악화
- 증시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연기금 투자확대와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판매 등 갖가지 수급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저치로 하락

## 나. KOSDAQ

<그림 IV-2> KOSDAQ 지수 추이



### ○ 코스닥시장의 최근 동향

- 코스닥지수 99년 말 대비 2000년 12월 말 현재 79.47% 하락

구 분	1997	1998	1999. 12	2000.12
코스닥지수(P)	97.25	75.18	256.14	52.58

- 99년 코스닥 시장 대폭 성장
  - 정부의 코스닥 지원 정책,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대, 미국 나스닥시장의 인터넷 관련주의 급등
  - 99년 12월 14일 현재 99년 초 대비 257.8% 상승(99.1.4~99.12.14)
  
- 코스닥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수급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로 일시적 하락
  - 2000년 1월 27일 현재 직전 최고점 대비 34.69% 하락(99.12.15~2000.1.27)
  
- 미국 나스닥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고치 돌파 (2000.1.28~2000.3.10)
  - 외국인 순매수 지속,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유입 급증
  - 투자자들이 기업실적보다는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주의 성장성에 대한 투기성 매수에 의해 2월 들어 급상승세를 시현
  
- 3월 중순 이후 하락세 지속 (2000.3.11~2000.5.24)
  - 첨단기술주에 대한 거품론 대두와 수급불균형 지속, 국내경기 및 기업실적개선추세 둔화 등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증가로 하락세 지속
  - 5월 24일 현재 115.46p로 직전 최고점 대비 59.26% 하락
  
- 5월말에 120p이하까지 하락하였던 지수는 미국주가의 호조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감소되며 한때 169.87p를 회복(2000.5.25~2000.6.8)
  
- 자금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수급불균형, 최근 미국 증시 불안, 연이은 주가조작사건에 따른 신뢰 하락 등으로 하락세 지속
  - 12월 26일 현재 52.58p로 6월 8일 이후 54.59% 하락

## 2. 거래동향

### 가. 거래소

#### ○ 증시 활동성

—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 이후 3조원 이상이 계속되어 활발한 거래 지속

<표 IV-1> 거래소시장 거래지표

	시가총액 (조원)	일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월평균 회전율
1993	112.7	574.0	15.2
1994	151.2	776.3	14.3
1995	141.2	487.8	8.4
1996	117.4	486.8	8.6
1997	71.0	555.8	11.8
1998	137.8	660.4	18.1
1999	349.5	3,481.6	29.6
2000	188.0	2,602.2	19.5
2000.1	332.40	3,528.7	20.5
2000.2	291.72	3,586.1	23.2
2000.3	304.65	3,652.7	26.0
2000.4	259.39	2,527.4	16.3
2000.5	263.99	2,284.0	17.2
2000.6	295.82	3,426.7	25.6
2000.7	256.35	3,066.1	22.0
2000.8	250.01	1,755.1	15.1
2000.9	224.07	2,008.3	15.2
2000.10	192.84	1,993.9	19.86
2000.11	191.22	1,693.4	18.83
2000.12	188.04	1611.6	14.37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 ○ 투자자별 동향

— 2000년 중 외국인 거래소 주식 순매수 규모는 11조 3872억원에 달함.

- 외국인투자는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와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9년 연속된 순매수세를 유지

— 2000년 중 기관투자자 거래소 주식 순매도 규모는 8조 7천억원에 달함.

- 기관투자자 거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투신권이 7조원 이상 순매도한테 기인

<표 IV-2> 거래소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단위 : 십억원)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은행	종금· 신용금고	기금· 공제회	기관 합계	기타	개인	외국인
1993	-1,039.0	196.1	-775.2	454.5	-40.4	79.1	-1,124.9	-569.0	-2,637.4	4,329.3
1994	-1,201.6	687.0	432.2	2,121.7	528.3	-1,341.9	1,225.7	-350.2	-1,819.8	929.0
1995	-1,532.0	966.0	49.9	418.6	-2.0	88.6	-10.9	894.6	-2,197.8	1,318.0
1996	-1,723.9	640.7	-675.0	-281.8	-69.7	118.1	-1,991.6	326.9	-1,412.4	3,073.8
1997	-975.7	140.8	-1,892.1	-638.6	153.2	-16.9	-3,229.3	197.0	2,608.3	424.0
1998	-764.1	-799.3	-689.7	-3,064.6	160.7	-21.6	-5,178.6	-53.1	-170.3	5,723.4
1999	-2,907.8	-3,080.0	12,768.1	-4,025.7	-1,268.1	-723.9	762.6	-1,611.6	-667.2	1,516.2
2000.1	-659.4	-97.7	587.7	223.8	-88.1	163.1	129.4	186.6	-1,504.6	1,188.7
2000.2	88.3	-220.6	-1,524.2	99.6	75.7	322.4	-1,158.8	-69.1	112.5	1,115.4
2000.3	-203.4	-288.3	-2,195.6	761.3	-120.7	-14.2	-2,060.9	769.3	-2,398.9	3,690.5
2000.4	-117.0	-61.3	-587.2	-421.8	-1.3	41.8	-1,146.8	-24.6	1,151.7	19.8
2000.5	-219.1	-118.0	-982.6	88.1	-64.8	37.0	-1,259.4	125.7	249.8	883.9
2000.6	330.3	-183.7	-1,291.4	-188.2	-41.0	-52.9	-1,426.9	38.2	-1,147.7	2,536.5
2000.7	496.8	-57.7	-936.8	-267.9	24.4	-3.3	-744.5	-121.5	-57.7	923.7
2000.8	-393.4	170.7	-381.6	2.2	6.2	159.7	-436.2	-182.8	-711.2	1,330.3
2000.9	-281.6	401.9	48.6	-88.6	51.1	132.3	263.7	-86.0	831.1	-1,008.7
2000.10	-68.3	-5.7	-88.6	-357.7	52.9	39.9	-427.5	144.3	656.5	-373.3
2000.11	-74.0	-79.4	-65.1	-123.0	-39.5	8.2	-372.8	191.9	-444.3	625.1
2000.12	3.5	-111.8	309.0	-177.2	-84.9	34.0	-27.4	114.1	-542.0	455.3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 나. KOSDAQ

○ 시가총액은 99년 말 대비 70.6% 감소

<표 IV-3> 코스닥시장 거래지표

	시가총액 (조원)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1997	7.1	4.0
1998	7.9	5.5
1999	98.7	428.9
2000	29.0	2,400.4
2000. 1	65.5	2,185.0
2000. 2	86.7	4,576.1
2000. 3	77.5	4,114.7
2000. 4	59.4	2,278.6
2000. 5	57.2	2,871.9
2000. 6	65.1	3,189.4
2000. 7	54.3	2,141.6
2000. 8	54.1	2,103.4
2000. 9	47.0	1,134.4
2000. 10	39.7	1,321.8
2000. 11	36.5	1,393.8
2000. 12	29.0	1,139.2

자료) KOSDAQ web site.

- 2000년 초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가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 위축
- 2월 8일 거래대금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시장 추월
    - 코스닥시장 4조8,779억원, 거래소 3조5,741억원
  - 2월 22일 거래대금이 6조3,30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4월부터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하여 9월 이후엔 급격히 침체
    - 12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거래가 가장 활발하였던 2월 대비 75.1% 하락

○ 투자자별 동향

- 개인투자자가 2000년 중 코스닥시장에서 2조 6904억원을 순매수하여 최대매수세력
- 2000년 중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순매수규모는 1조 5647억원
- 2000년 중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순매도규모는 1조 6803억원

<표 IV-4> 코스닥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단위:십억원)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은행	종금	기금· 공제회	기관 합계	기타	개인	외국인
2000.1	5.8	-16.8	60.4	17.1	-39.3	4.2	31.6	-23.8	-179.9	172.1
2000.2	-21.0	-1.3	590.6	73.5	-189.6	3.3	455.5	-728.4	-747.0	1019.9
2000.3	-35.1	72.3	-23.4	-28.3	-92.3	8.4	-98.4	-324.0	142.8	279.6
2000.4	-32.5	40.3	-421.7	-56.2	-5.0	-0.5	-475.6	-117.7	798.5	-205.2
2000.5	-31.5	-6.4	-90.1	-54.7	-50.4	-44.3	-277.5	-257.4	573.4	-38.5
2000.6	-14.3	26.2	-225.7	14.8	-65.9	0.8	-264.1	-421.8	599.8	86.1
2000.7	3.7	-12.9	-234.6	-8.0	-28.7	-5.0	-285.4	-94.9	392.3	-12.0
2000.8	-0.6	-6.6	-341.8	7.9	-3.1	0.5	-343.6	-263.8	523.2	84.2
2000.9	18.0	14.8	65.8	26.0	-3.8	9.1	129.8	-7.1	-166.7	44.0
2000.10	-67.1	4.9	-172.1	2.5	4.4	2.6	-224.9	-92.7	268.4	49.1
2000.11	-19.6	21.8	-132.9	-42.7	9.3	12.4	-151.7	-160.4	264.1	48.0
2000.12	7.5	-9.7	-145.2	9.6	-34.0	-4.3	-176.0	-82.9	221.5	37.4
2000계	-186.7	126.6	-1,070.7	-38.5	-498.4	-12.8	-1,680.3	-2,574.9	2,690.4	1,564.7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 3. 한국기업의 최근 경영성과

#### 가. 재무구조

##### 1) 제조업

- 2000년 6월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3.1%로 1999년 말보다 21.6%p 하락
  - 1967년(173.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1998년 이후의 하락세를 지속
  - 수익성 향상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자기자본증가에 주로 기인
- 차입금의존도는 41.4%로 1999년 말(42.8%)보다 1.4%p 하락
  - 동 비율이 가장 낮았던 1989년(38.5%)보다는 2.9%p 높은 수준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조업체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IV-5> 제조업의 재무구조 관련지표**

(단위 : %)

	1980-1989	1990-1999	1997말	1998말	1999말	2000.6말	미국(1999)	일본(1998)
부 채 비 율	361.2	302.4	396.3	303.0	214.7	193.1	164.3	173.6
자기자본비율	22.1	25.1	20.2	24.8	31.8	34.1	37.8	36.6
차입금의존도	44.3	46.6	54.2	50.8	42.8	41.4	27.7	33.7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 자산운용 측면의 안정성도 개선
  -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전년말의 92.0%에서 95.3%로 상승, 고정비율은 202.3%에서 188.8%로 하락

**<표 IV-6> 제조업의 자산운용 관련지표**

(단위 : %)

	'80~'89	'90~'99	'97말	'98말	'99말	2000.6말	미국('99)	일본('98)
유동비율	99.8	93.8	91.8	89.8	92.0	95.3	127.0	134.9
고정비율	228.5	224.5	261.1	242.5	202.3	188.8	177.9	130.9
현금비율	11.8	13.8	13.6	15.4	13.7	14.6	10.9	29.1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2) 건설업 및 도·소매업

- 건설업은 2000년 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381.7%로 1999년말(405.9%)보다 24.2%p 하락
  - 적자 지속 및 유상증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등 비이자부부채의 감소 등에 기인
- 건설업의 차입금의존도는 44.0%로 1999년 말(42.9%)보다 오히려 상승

**<표 IV-7> 건설업 및 도·소매업의 재무구조 관련 지표**

(단위 : %)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1999말	2000.6말	1999말	2000.6말	1999말	2000.6말
건설업	405.9	381.7	19.8	20.8	42.9	44.0
도소매업	841.4	571.7	10.6	14.9	48.8	37.4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 도·소매업은 부채비율이 1999년말의 841.4%에서 571.7%로 크게 하락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주)대우의 채무면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데 기인하여 하락

## 나. 수익성

### 1) 제조업

- 2000년 상반기 중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5.1%로 전년동기보다 0.9%p 상승
  -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정보통신업종의 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상승하고 매출증가와 차입금 감소 및 금리 안정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
  
- 영업외수지는 전년동기 수준(매출액대비 -3.6%→-3.5%)을 지속
  - 금융비용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처분손실 발생(매출액대비 0.1%)
  -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순외환이익 감소 등에 기인
  
- 매출액 순이익률은 경상이익률 상승과 특별손실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2.0%p 상승하여 1973년(7.5%) 이후 가장 높은 4.8%를 기록

**<표 IV-8> 제조업 손익계산서**

(단위 : % )

	97상	98상	99상	00상
매출액 영업이익률	7.5	8.8	7.8	8.6
매출액 경상이익률	1.4	-0.4	4.2	5.1
금융비용 부담률 <sup>2)</sup>	6.2	9.3	7.4	5.1
차입금 평균이자율 <sup>3)</sup>	11.3	14.0	11.3	10.3
인건비 부담률 <sup>4)</sup>	12.0	9.4	9.6	9.5

주 : 1) 97상~99상은 당해연도말 기준

2) 금융비용/매출액    3) 금융비용/(차입금+회사채)    4) 인건비/매출액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 2000년 상반기중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6%로 전년동기보다 0.8%p 상승
  -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액 대 재료비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매출 호조로 고정비 부담이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기 때문

**<표 IV-9> 제조업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단위 : 매출액대비 %)

	1997상	1998상	1999상	2000상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92.5	91.2	92.2	91.1
(재료비)	(49.3)	(50.4)	(49.1)	(49.4)
(인건비)	(12.0)	(9.4)	(9.6)	(9.5)
(감가상각비)	(4.6)	(4.5)	(5.6)	(4.8)
(대손상각비)	(0.1)	(0.7)	(0.5)	(0.3)
(광고선전비)	(0.97)	(0.71)	(0.72)	(0.74)
(접대비)	(0.24)	(0.16)	(0.19)	(0.17)
(운반하역보관포장비)	(2.08)	(2.15)	(2.08)	(1.79)
(연구개발비)	(0.43)	(0.39)	(1.12)	(1.24)
영 업 이 익	7.5	8.8	7.8	8.6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 2000년 상반기 중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169.5%로 전년동기(105.3%)보다 64.2%p 상승
  -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미치는 업체 비중이 26.7%(1999상 : 30.4%)로 여전히 전체의 1/4을 상회

2) 건설업 및 도·소매업

- 건설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보다 0.7%p 낮아지고 매출액 경상이익률 적자폭이 전년동기보다 확대
  - 금융비용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업체간 가격경쟁이 심화된 데다 매출부진으로 고정비부담이 증가
- 도·소매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든 데 기인하여 전년동기보다 상승

<표 IV-10> 건설업 및 도·소매업의 수익성 지표

(단위 : %)

	건설업				도·소매업			
	1997상	1998상	1999상	2000상	1997상	1998상	1999상	2000상
매출액 영업이익률	4.2	3.3	3.7	3.0	1.8	1.7	2.2	2.2
(매출원가/매출액)	89.4	89.8	89.1	89.0	90.8	91.8	90.7	89.5
매출액 경상이익률	0.2	-3.9	-1.5	-1.9	0.3	-0.2	0.8	1.1
(금융비용/매출액)	5.9	9.2	7.6	5.9	2.4	2.9	2.5	1.9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 4. 향후 증시 영향요인

##### 가.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

- 지난 3년간의 금융구조조정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된 것으로 평가됨.
  - 신용위험 관리 취약, 부실기업 정리 미흡, 불법 불공정 거래 만연 등 구조적 문제점의 해소가 미흡
  - 부실기업 퇴출 지연에 따른 회사채 시장의 마비가 발생
- 금융 구조조정 미완의 원인
  -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성격이 총체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주어진 구조조정의 과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었음.
  -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관여, 투자자 책임 원칙의 일시적 유보 등 위기 이전과 연속되는 면이 있어 금융시장의 자율작동은 여전히 취약
  - 전반적인 금융정책 추진이 여전히 재량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바 원칙 확립의 부족으로 구조조정 추진력이 약화

○ 향후 과제

-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으며 최소한 향후 1~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냉정히 인식
- 금융기관의 자율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영화 추진
- 금융구조조정의 준칙을 확립하고 재량권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방지
- 통합감독기구는 오로지 건전성 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혁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확립에 매진토록 함.

나. 미국 경기 경착륙 가능성

□ 미국 경기 둔화

- 미연준은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을 성공적인 연착륙으로 이끌기 위해 99년 하반기 이후 6회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
  - 이 효과로 내수가 둔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경기의 과열조짐이 진정되고 있으나 이런 추세가 경기침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
    - 실제 미국의 3/4분기 성장률은 2.2%로 4년만에 최저수준 기록
    - 기업실적악화 : 기업들의 세후 이익이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인 9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0.6% 증가율 기록 (2/4분기 : 2.5%)
  -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 불안이 금융부문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우려됨.
  
- 금년 중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연착륙 가능성이 높으나 나스닥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달러화 폭락 등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신경제의 미래와 나스닥 거품론

- 2001년 미국경제는 신경제에 대한 회의론과 이에 따른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증대로 불안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난 수년간의 나스닥 주가 상승이 인터넷 등 첨단 기술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음.
  - 나스닥 거품 해소 과정이 일본의 버블붕괴 초기의 주식시장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음.
  
- 정보기술 발전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미국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98년 110.5에서 99년 114로 높아졌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8.6으로 상승
  - 하지만 노동생산성 향상이 투입 요소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못했음.
  
-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공존
  - 긍정론자들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
  - 비관론자들은 인터넷 관련 업체 상당수가 창업후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자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 장기적으로 볼 때 급격한 기술혁신기에는 부상하는 일부 기업과 도태되는 수많은 기업이 나올 수 밖에 없음.
  - 문제는 미국 증시의 조정장세가 미국경기의 연착륙을 어렵게 할 것인지가 관건

□ 금융시장 불안 심화 전망

- 미국 증시호조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에 뒷받침된 측면이 큼.
  - 기업들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져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국제자금 유입이 줄어들 경우 미국 증시와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됨.

- 연간 4,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안할 때 장기간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증시가 불안함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보전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 급락→ 달러화 급락→ 미국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
  
-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 전반에서의 불안정후가 미국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 불안이 금융부문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우려됨.
  -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화 강세를 유지하려면 고금리를 통한 외자유치가 필요하지만 이럴 경우 주식시장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우려 때문에 국채와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커지는 금리 양극화가 진행 중임.
  -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회사채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실정

## 다. 금리

- 2001년 상반기 중에도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채권수급 호조로 지표금리를 결정하는 국채수익률과 우량 회사채 수익률의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우량 채권시장 안정이 관건
  - 국공채와 통안채, 우량기업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임.
    - 기업신용위험의 완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진전 없이는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반면에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의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워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순증 발행은 많지 않을 전망

- 경기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예상되므로 동안채의 순상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우량 회사채는 전반적으로 순상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라. 신용경색 현상

- 2001년에도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신용경색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다가 금융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경기가 회복될 하반기에 다소 풀릴 전망
  - 부실기업 문제가 지연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단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
- 부실기업 처리가 관건
  - 2000년 11월에 부실기업의 2차 퇴출이 이루어졌지만 한계 기업들 중 상당수가 회생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기업부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그 결과,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과다부채가 여전히 금융권에 잠재적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기존 부실문제를 일단락 짓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실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경우 하반기에 개선 여지
  -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각 경제 주체들의 위험회피경향도 진정될 것임.
  - 부실징후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면 나머지 생존기업들의 부채 부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안전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오랫동안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BIS비율을 의식한 은행들의 가계대출, 국공채투자 위주의 자산운용은 이미 은행들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잠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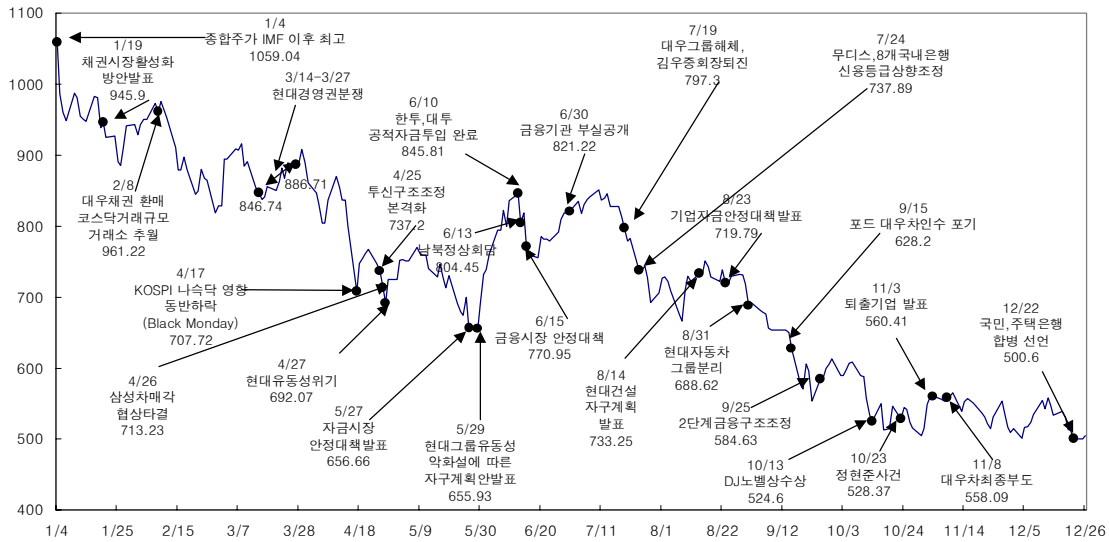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결국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채인수와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2001년 하반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마. 원화환율

- 원화환율이 2000년 11월 말경부터 급작스럽게 급등세로 돌아서며 불안한 양상보임.
  - 역외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달러화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
  - 고유가,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교역조건의 악화가 지속
    - 12월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유가의 재반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은 상태
    - 반도체 가격이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대만달러화와 엔화 등 경쟁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
  -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감과 국내 증시의 침체가 원화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 최근 환율불안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중장기적 성격을 지남에 따라 2001년 1/4분기에도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
  - 최근 환율불안현상은 향후 원화절하심리에서 비롯된 투기적 외환거래 영향이 컸던 반면 2001년 1/4분기 중에는 실제 수급상으로도 달러화가 부족해질 우려 있음.
    - 그동안 매월 10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1/4분기 중에는 계절적 특성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증시불안으로 국내증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수입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제2차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2단계 외환자유화의 영향으로 원화절하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을 경우 국내자금의 해외이탈도 우려되는 상황

# <부록 I : 주요 증시영향사건 (2000.1 ~ 2000.12)>

<그림 부록 I-1> 주요 증시영향사건



## □ 2000년 3월 14일 ~ 3월 27일 현대 경영권분쟁

### ○ 정몽구 · 몽헌 현대회장 간의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 3월 14일 정몽구 회장의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교체로 촉발
- 이번 사태는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밀실 인사, 주주 무시 등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정주영 명예회장에 의해 결국 정몽헌씨의 단독회장 체제로 일단락

## □ 2000년 4월 24일 ~ 5월 3일 현대투신사태

### ○ 4월 24일 참여연대의 바이코리아폭로를 계기로 발생

- 현대투신운용이 공사채형 펀드의 부실채권을 주식형펀드에 편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참여연대가 밝힘.

- 투신 공적자금 투입 대상에서 현대투신이 제외,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 투자한도를 7%내로 축소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사태가 더욱 악화
- 현대투신 상황
  - 누적결손이 1조원 정도에 이름.
    - 98년 말 한남투신을 인수하면서 6천억원 안팎의 누적결손 상태
    - 99 회계연도에 4천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 차입금 규모가 3조 6천억원에 달함
  - 이중 고객 신탁재산인 현대투신운용의 펀드자산에서 빌린 연계콜규모가 3조 2천억원
  - 정부가 현대투신증권이 쓰고 있는 연계콜을 2000년말까지 모두 갚으라고 지시하여 2000년 안에 2조5천억~3조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 □ 2000년 4월 25일 투신 구조조정 본격화

- 정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해 조기 정상화하기로 결정
  - 양대 투신사가 공적자금을 받아 정상화되면 다른 재벌계열 투신사의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예정
  - 정부는 두 투신사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증권사)로 나눈 뒤 신탁계정의 부실 중 자체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부분은 공적자금을 넣어 해소하기로 함.
  - 투신사에 투입될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토대로 자산관리공사가 ABS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할 방침.
  - 두 투신사의 고유계정 부실은 한국투신이 3조5천억원, 대한투신 2조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4조~5조원에 이를 전망

#### □ 2000년 4월 25일 삼성차 매각협상 타결

- 4월 25일 삼성차 채권단, 르노 인수안 수용
  -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4월 25일 전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르노측이 제시한 인수금액 6천2백억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의

## □ 2000년 5월 27일 자금시장안정방안

- 5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대그룹 문제와 함께 자금시장 안정방안 논의
  - 현대건설 등 일부 현대계열사의 단기유동성 위기가 전 그룹으로 확산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중시,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장의 심리안정**을 꾀하는 한편 **투신사의 채권매수여력을 크게 늘리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 **채권시장을 정상화**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짐.
  
-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 금리안정기조 유지
  - 투신사 수신기반 강화
  - 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
  -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
  - 자금조달 애로 확산 대비

## □ 2000년 6월 10일 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완료

- 한국투신, 3조원 증자 완료
  - 한국투자신탁증권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총 3조원의 자본금 증자를 완료
  - 이로써 한국투신증권의 자본금은 1조9,653억원에서 4조9,65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기대되어짐.
  
- 대한투신 증자 완료
  -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총 1조9,0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완료
  - 이로써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자본금은 9,963억원에서 2조8,963억원으로 증가

- 양 투신사에 지원된 총 4조 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2000년 6월 29일 대우차 우선협상대상자로 포드선정

- 대우차 우선협상 대상자 포드 선정
  - 대우자동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7조7,000억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미국 포드자동차가 단독 선정됨.

□ 2000년 7월 19일 대우 그룹 해체, 김우중 회장 퇴진

□ 2000년 9월 15일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 대우자동차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포드자동차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
  - 이에 따라 대우차 매각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
  - 포드자동차 측은 대우차의 사업현황 및 관련 자회사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제안을 낸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포드 내부의 문제로 해석
    - 포드는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숨겨온 엔진결함이 알려져 인수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며 대우차 실적결과에 문제가 있어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2000년 6월 대우차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제너럴모터스(GM) 및 현대차-다임러크라이슬러 등과 다시 매각협상을 벌일 방침

□ 2000년 10월 13일 DJ 노벨상 수상

□ 2000년 11월 3일 기업퇴출 발표

-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11월 3일 287개 부실징후 기업의 회생·퇴출 여부를 평가
  - 52개 부실기업을 청산·법정관리·매각·합병 등을 통해 정리
    - 청산대상 : 한라자원, 우성건설 등 18개사
    - 법정관리 : 대한통운, 동아건설 등 11개사
    - 매각 : 진도, 고합 등 20개사
    - 합병 : 갑을, 갑을방적 등 3개사
  - 은행권의 판정 결과 287개 기업은
    - 정상 136개
    - 일시적 유동성부족 기업 28개 :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 회생가능기업 69개 : 은행이 책임지고 회생을 도와주게 됨.
    - 정리대상 52개
    - 기타 2개 등으로 나타남.

<표 부록 I-1> 1.2차 기업퇴출 판정 비교

구분	1차 (98년 6월17일)	2차 (2000년 11월3일)
대상업체	313개	287개
퇴출기업 수	55개 (17.6%)	50개 (17.4%)
처리기준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위주	현금유동성 위주
분류방식	정상/회생 불가	정상/일시적 유동성위기 /구조적 유동성 위기/정리대상
처리대상	대기업계열중심 (5대계열 20개, 6~64대 계열 32개)	중견기업 중심 (기존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 중심)
처리방식 (비중순)	청산(26)→매각(11)→ 합병(8)→법정관리(7)	매각(20)→청산(19)→ 법정관리(10)→합병(3)

-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 처리방향
  -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본래 법정관리에 넣어야 하지만 현재 부도가 안나 기타로 분류
  - 자구노력으로 살아나면 문제가 없고, 아니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넣을 방침이라고 밝힘.
  
- 부실기업 판정 정례화
  - 정부와 채권단은 앞으로 금융권 여신 5백억 원 이하의 부실 중견·중소기업도 11월 말까지 은행별로 퇴출 여부를 판정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부실기업 판정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밝힘.
  
-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 을 마련, 발표
  - 퇴출기업 협력업체들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 협력업체들이 이미 할인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함.
  - 정부는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자금(연 3%) 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400억원을 중소협력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방침
  - 이와 함께 퇴출로 인한 실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출기업에서 이직한 사람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1/3에 해당하는 채용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함.

## □ 2000년 11월 8일 대우차 최종부도

- 대우차 최종부도, 사상 최대 규모
  - 채권단의 최종부도 처리에 대해 대우자동차는 "향후 회사 운영방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산업은행은 "대우차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으며 다른 채권은행과 협조로 부도이후에 협력업체 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
  -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차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10월말 현재 12조 2700억원, 상거래 채무와 관계사 채권채무를 합한 전체부채는 6월말 현재 18조2000억원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규모의 부도라고 설명.
- 제일은행은 첫날 대우차가 결제하지 못한 237억원에 대해 최종 부도처리를 했다고 은행관계자가 밝힘.
- 서울은행도 대우차가 결제하지 못한 280억원의 어음을 최종 부도처리

□ 2000년 12월 22일 국민, 주택은행 합병 발표

<표 부록 1-2> 국민·주택은행 합병 내역

	국민	주택	합병은행
총자산	97	70	167
총수신	69.78	52.38	122.16
총여신	45.52	40.97	86.49
자기자본	4.16	2.48	6.64
BIS비율(%)	11.13	10.03	10.70
점포수 (계)	595	555	1,150
당기순이익(억원)	5,263	5,017	10,280
설립연도	1963년	1967년	내년 6월안에 신설
주요주주	골드만삭스 11.1% 정부 6.5%	정부 14.5% ING 10.0%	정부·골드만삭스·ING

- 국내 최우량인 국민, 주택은행 합병
  - 앞으로 새 합병은행과 한빛 등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은행산업 재편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 국민·주택은행이 합병하면 자산 1백67조원, 자기자본 6조6천4백억원의 세계 60위권 초대형 은행 탄생
  -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한빛은행에 외환은행이 가세하면 역시 자산 1백30조원대, 세계 1백위권 초대형 은행이 탄생

- 한빛.외환은행을 축으로 할 금융지주회사는 기업.국제금융 분야에서,  
국민.주택은행은 소매금융쪽에서 시장을 양분할 전망
- 국민.주택은행 합병은 다른 은행들의 합병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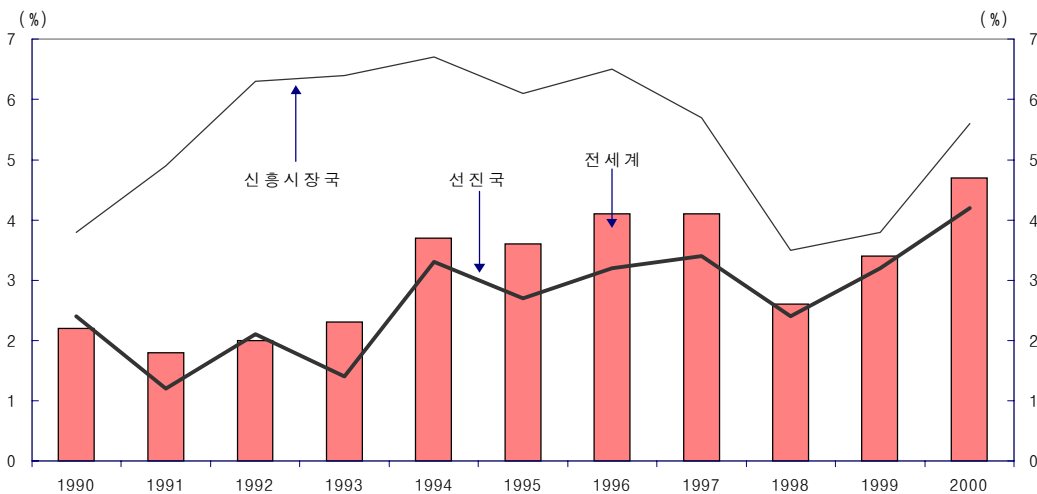
## < 부록 II : 해외경제 동향 >

### 1. 세계경제

○ 2000년중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4%대에 달하였는데 이는 198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미국 경제가 하반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데다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세가 확대
- 일본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으며 아시아지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중남미지역도 뚜렷한 회복세 보임.

<그림 부록II-1>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1년 경제전망」, 2000. 12.

○ 2001년중 세계경제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며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경제 성장률 감소에 따라 전망치들이 축소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1999년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상 및 유가상승
-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
-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금년의 4%대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부록 II-1> 세계경제 성장률<sup>1)</sup> 전망

(단위: %)

	1998	1999	2000			2001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전 세계	2.6	3.4	4.7	4.7	4.4	4.2	4.1	3.8
선진국	2.4	3.2	4.2	4.3	4.0	3.2	3.3	3.3
미국	4.4	4.2	5.2	5.2	5.3	3.2	3.5	3.6
일본	-2.5	0.2	1.4	1.9	2.1	1.8	2.3	3.1
유로지역 <sup>2)</sup>	2.7	2.4	3.5	3.5	3.5	3.4	3.1	3.3
(독일)	2.1	1.6	2.9	3.0	3.0	3.3	2.7	3.3
영국	2.6	2.1	3.1	3.0	2.9	2.8	2.6	2.6
신흥시장국 <sup>3)</sup>	3.5	3.8	5.6	5.4	-	5.7	5.5	-
아시아	4.1	5.9	6.7	-	6.9	6.6	-	5.7
중남미 <sup>4)</sup>	2.2	0.3	4.3	-	3.7	4.5	-	4.5
체제전환국 <sup>5)</sup>	-0.8	2.4	4.9	-	4.6	4.1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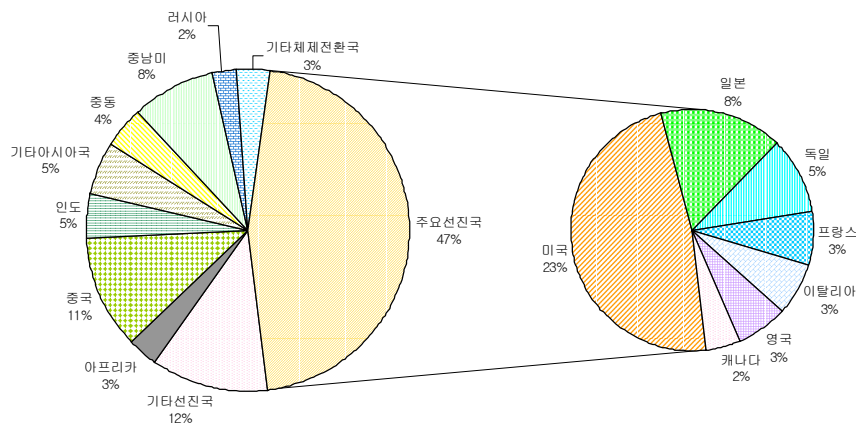
주: 1) 실적치는 IMF 기준 2) WEFA는 EU 기준

3) IMF는 개발도상국 기준이며 OECD는 非OECD회원국 기준

4) WEFA는 멕시코를 제외 5) WEFA는 동유럽 및 구소연방 국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01년 경제전망」, 2000. 12.

<그림 부록 II-2> 국가별 GDP 점유율 비교



주: 1999년 구매력 환산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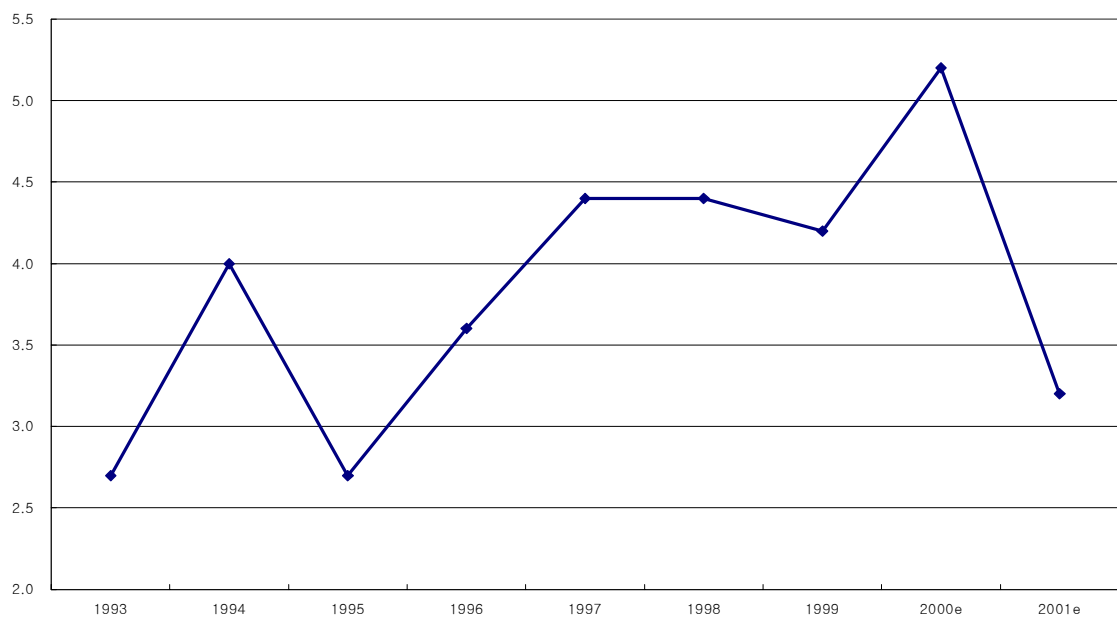
## 2. 미국

○ 2000년 중 연간 5%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

- 이는 1999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연준의 6차례에 걸친 금리인상과 국제유가 상승, 연초이래 주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기인
- 1/4분기와 2/4분기에 5% 내외의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을 보인 후 3/4분기에 2.4%로 성장률 둔화

<그림 부록 II-3> 미국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 2001년 중에는 금년중의 5%대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3%대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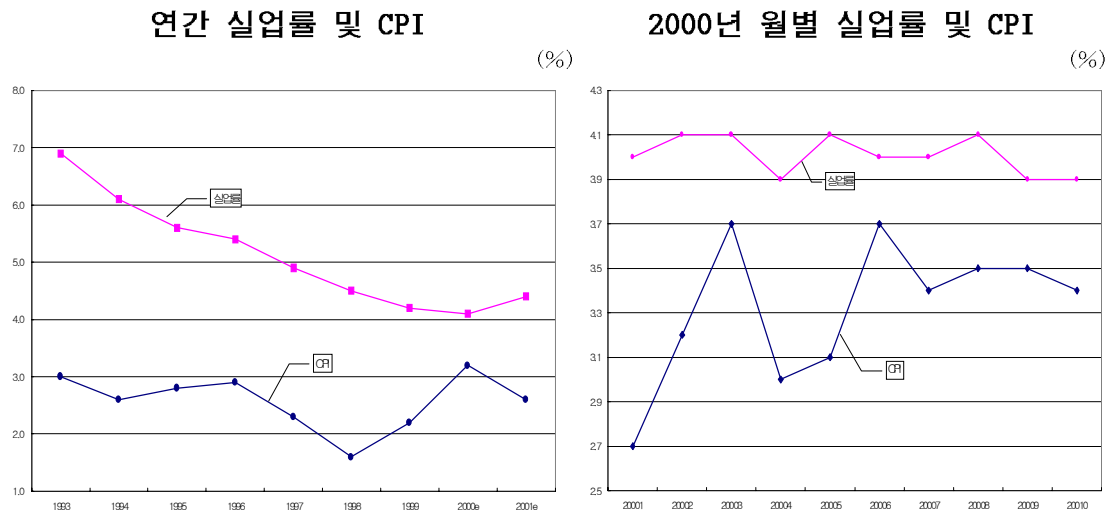
- 1999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연준의 금리인상과
- 주가하락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데다
-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위 신경제 현상이 지속된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나 HSBC나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 미국경제가 연착륙할 경우 미국 역사상 장기호황 이후에 경착륙하지 않은 최초 사례가 됨.
  - 미국은 1860년대, 1920, 1960년대 각각 장기호황 이후 경착륙함.

○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세, 물가는 안정

- 실업률은 경제의 장기호황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시현
- 물가는 유가상승과 노동시장 경색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상승세
  - 그러나 인플레이 촉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II-4> 미국 실업률과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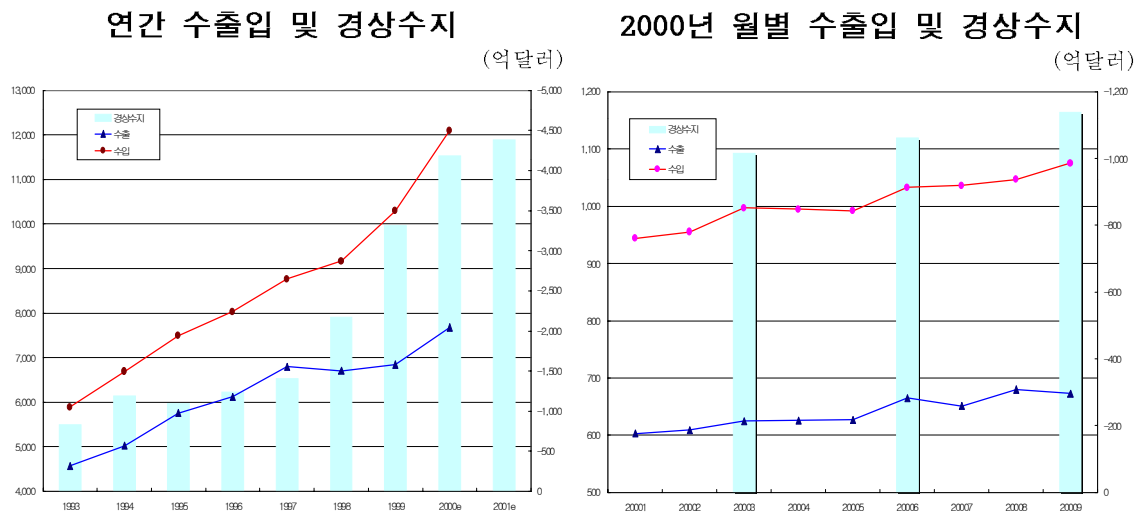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Datastream.

- 2001년 중에는 실업률은 다소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미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실업률은 그간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할 전망이며,
  - 물가상승률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유인이 없을 전망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의 장기호황 속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 지속
  - 올해 달러화의 강세와 유가상승이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그림 부록 II-5> 미국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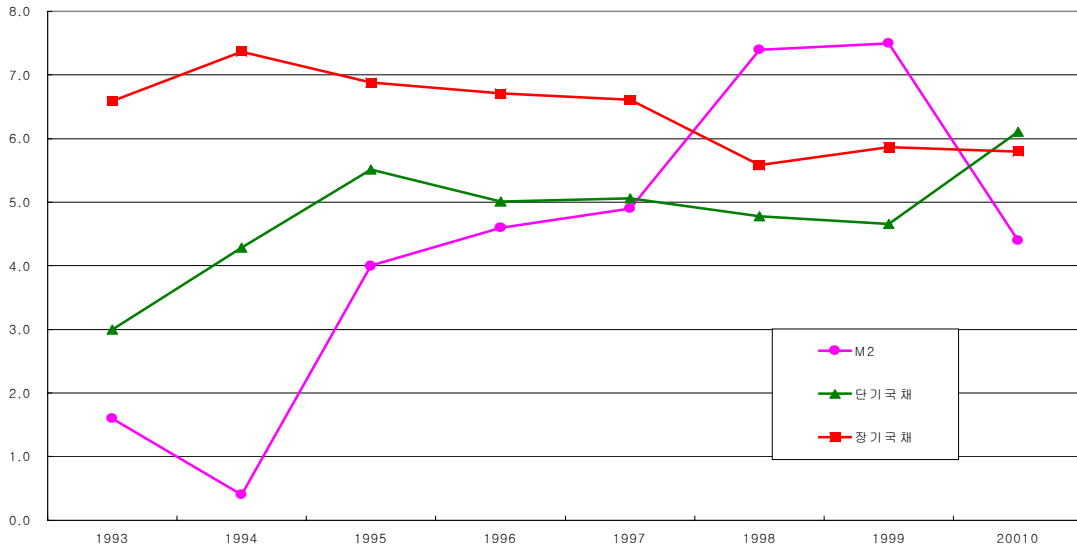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Datastream.

- 2001년 중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
  -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확대될 예상이나
  - 유리화의 강세 및 내수축소에 따른 수입감소로 확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통화량 증가세 감소, 장단기 금리 역전
  - 199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통화량 증가율이 2000년 들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시중 유동성흡수에 따라 감소함.
  -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계속 줄어들다가 2000년 들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짐.

### <그림 부록II-6> 미국 통화량 및 주요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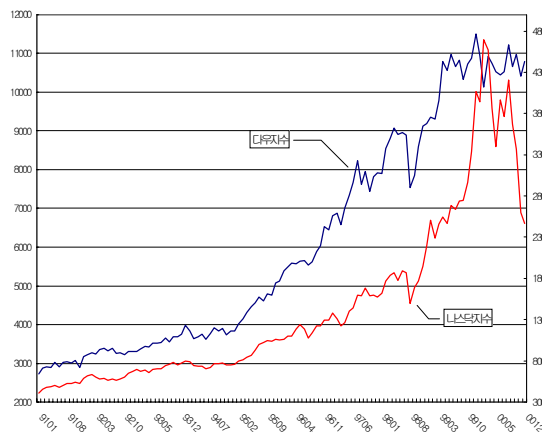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Datastream.

○ 2000년 주가는 하락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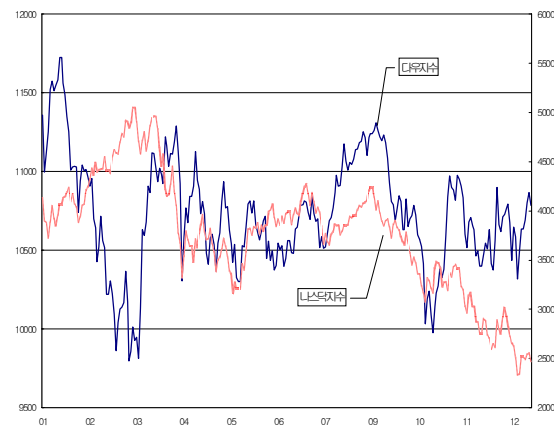
-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큰 하락을 시현
- 이는 1999년의 급상승에 따른 반락으로 보임.

### <그림 부록II-7> 미국 주요주가지수 추이

주요 주가지수 추이



2000년 주요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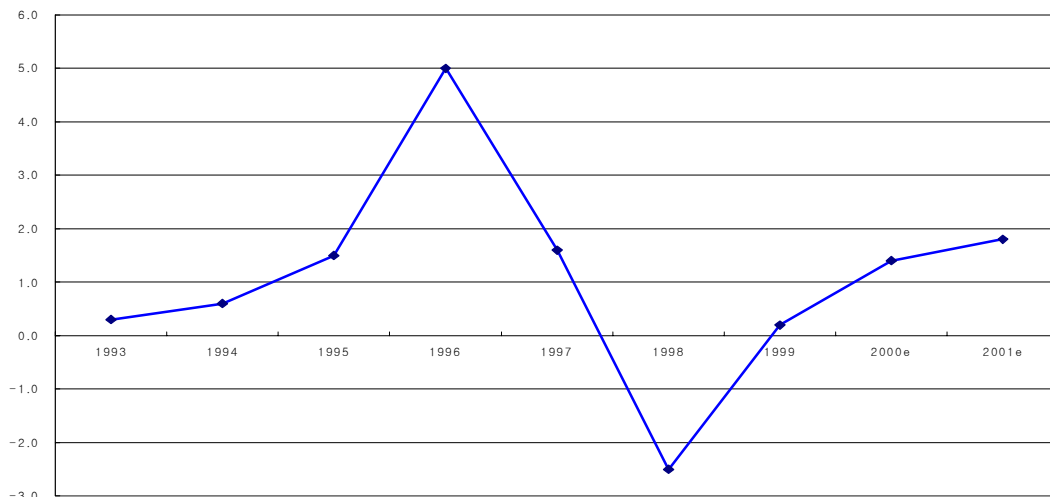


자료 : Datastream.

### 3. 일본

- 연간 2% 내외의 성장을 기록
  - 민간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4분기에 10.3%(전기대비 연율)의 높은 성장세 시현
  - 2/4분기에 설비투자 감소로 0.9% 성장
  - 3/4분기 들어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1.0% 성장

<그림 부록 II-8> 일본의 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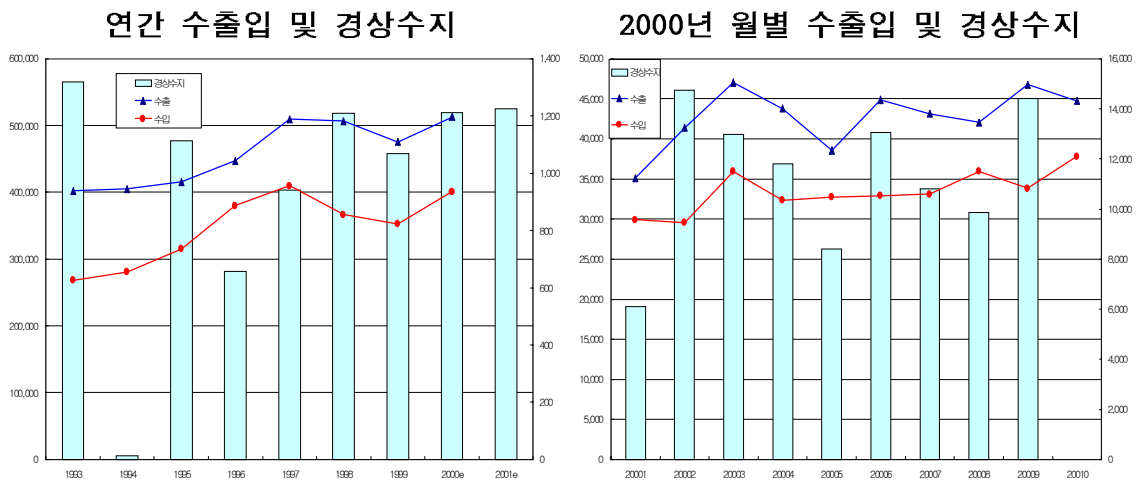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 2001년에 일본은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간의 고용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 일본 정부의 「일본신생을 위한 신발전정책」<sup>4)</sup>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4) 일본 경제기획청은 2000년 10월 19일 일본 경제의 자율적 회복을 목표로 하여 신규 정부 지출 3조 9천억엔을 포함한 총 11조엔(약 1,020억달러) 규모의 ‘일본신생을 위한 신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정보기술(IT)과 도시기반 및 생활기반 등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중소기업금융 및 주택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함. 일본 경제기획청은 이러한 대책의 추진에 따라 향후 1년간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약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수출입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됨.
  -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2000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 2001년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1,200억 달러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둔화와 유가상승에 따라 수출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나 경상수지 흑자폭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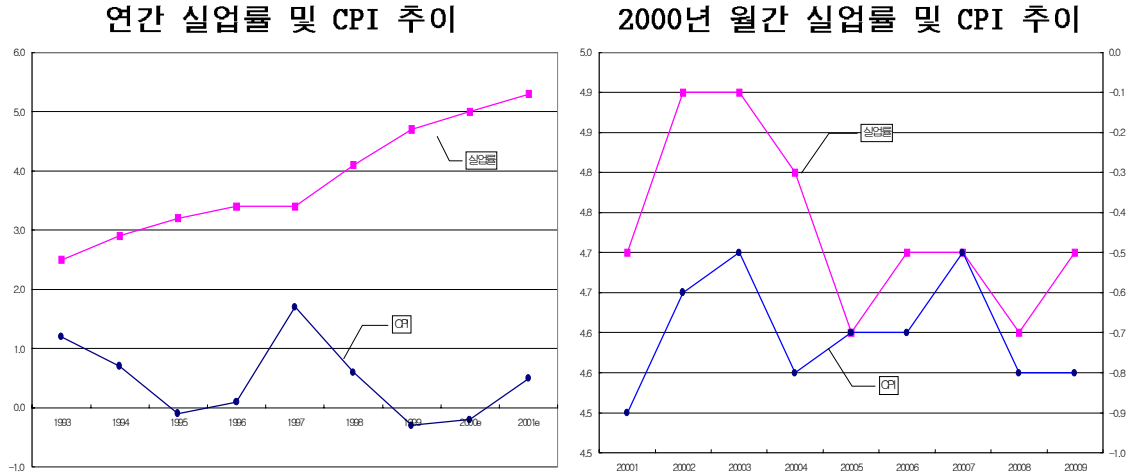
**<그림 부록 II-9> 일본의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실업률은 지속적 상승세, 물가는 하락 시현
  -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악의 고용사정을 보이고 있음.
  - 물가는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경제회복세와 함께 물가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증가할 전망
  - 2000년 중 한때 전후 최고 수준인 4.9%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1년엔 5%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물가수준은 경제 성장과 함께 다소 상승하여 2001년엔 0.5%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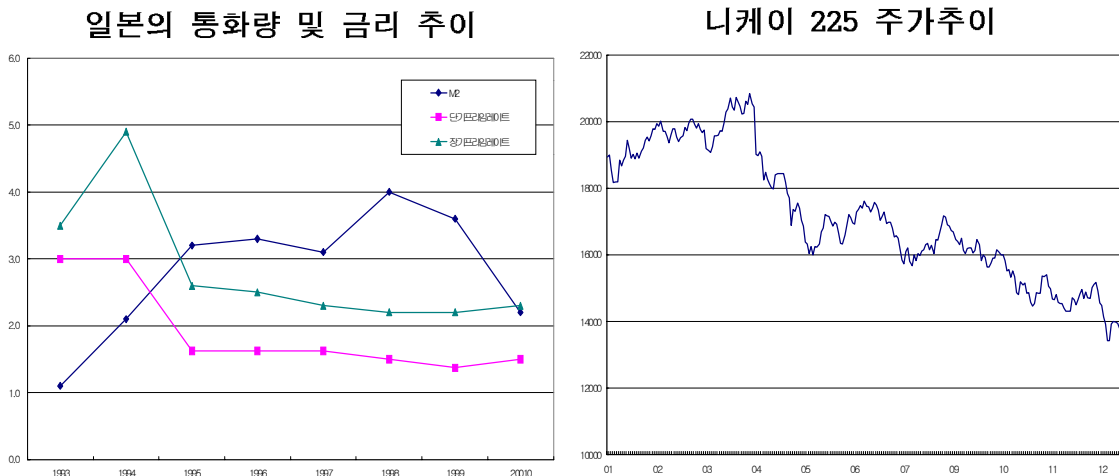
<그림 부록II-10> 일본의 실업률 및 CPI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일본의 통화량은 1998년 이후 증가세 감소 지속, 금리는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
- 전세계적인 추가하락과 함께 일본의 추가도 하락세를 시현

<그림 부록II-11> 일본의 통화량, 금리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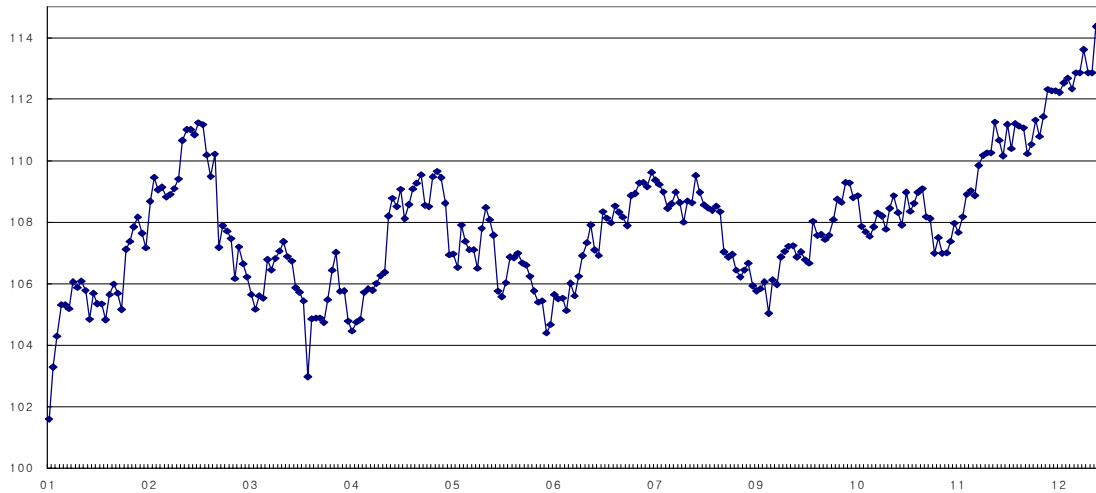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자료 : Datastream

○ 엔화는 약세 시현

- 일본의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강세로 출발했던 엔화는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약세 시현

<그림 부록 II-12> 엔/달러 환율추이



자료 : Datastream

#### 4. 유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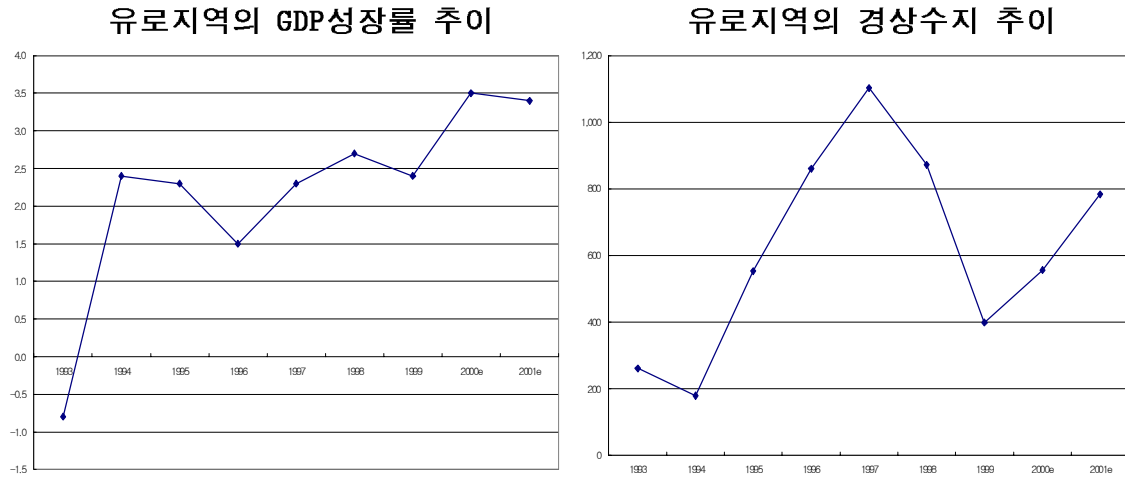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금년 들어 더욱 확대됨으로써 3%대 중반의 성장을 시현

- EU는 92년 시장통합과 99년의 통화통합 작업을 거치면서 탄탄한 산업기반과 건실한 정부재정을 이룩하는 데 성공
-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유로화 약세로 수출 신장세가 확대된 데 기인

○ 유로지역은 2001년 성장률이 금년의 3.5%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1999년 11월 이후 ECB의 금리인상 효과와 금년중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성장 둔화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금년 EU경제는 성장률에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든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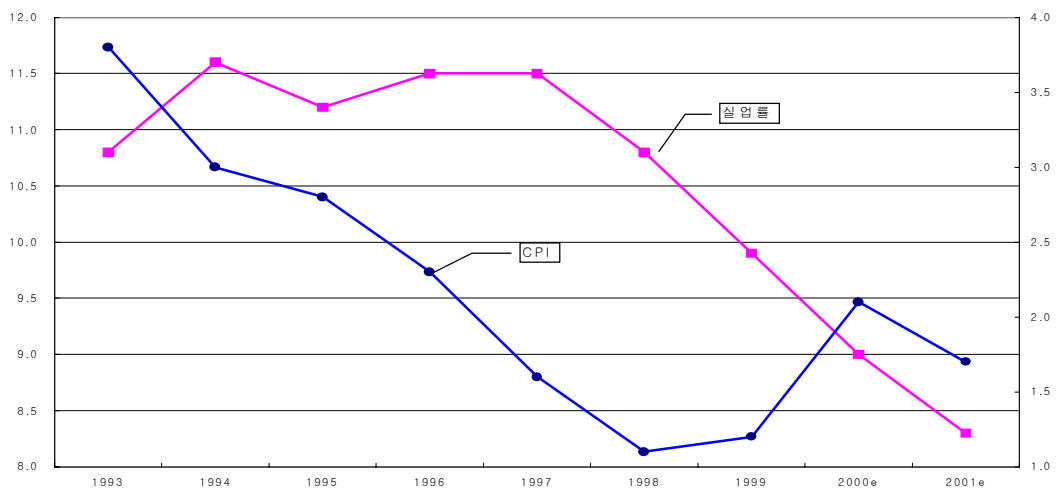
<그림 부록 II-13> 유로지역의 GDP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될 전망
  - 해외수요의 증대를 통해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이 두드러지고 대외관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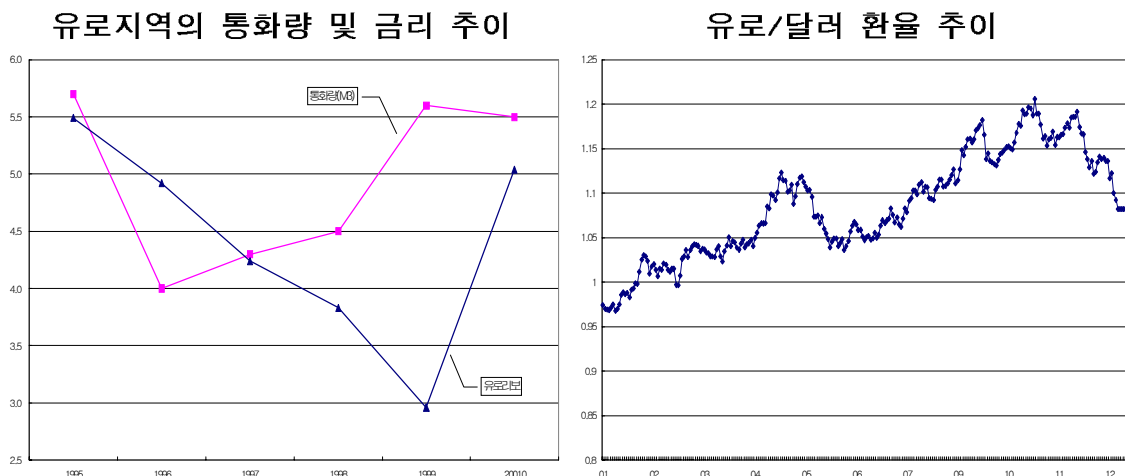
<그림 부록 II-14> 유로지역의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실업률은 지속적 감소
  -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세 시현과 함께 당분간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물가는 다소 상승
  -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고유가로 물가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인플레이 우려는 없음.
  
- 유로지역의 통화량증가율은 감소세 시현
  -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흡수로 2000년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다소 감소할 전망
  
- 유로리보는 큰 폭의 상승세 시현
  
- 유로화는 약세에서 벗어나 강세를 보임.
  - 연초 약세를 보이던 유로화는 미국 경제의 둔화와 유로 지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 2001년 중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에 따라 강세를 시현

<그림 부록 II-15> 유로지역 통화량, 금리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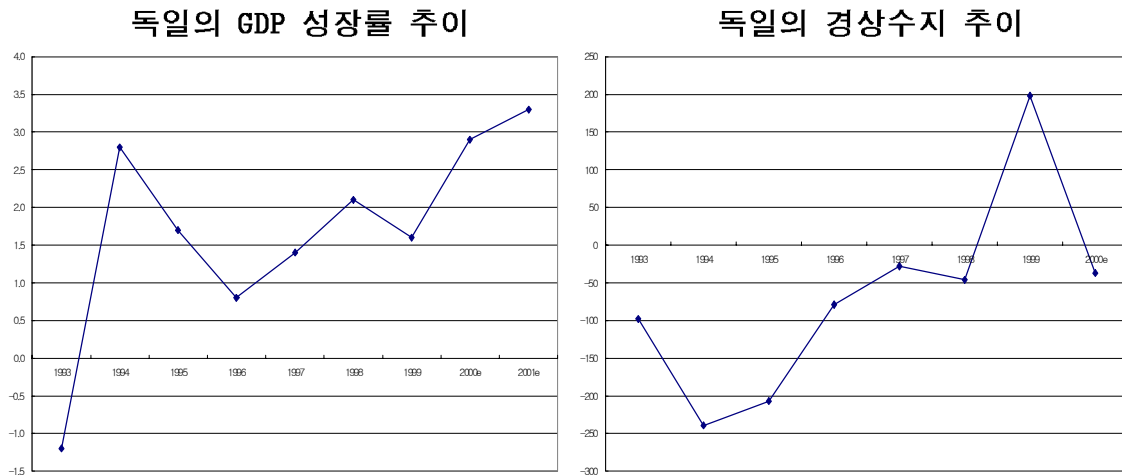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자료 : Datastream

- 독일의 경우 연간으로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
  -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등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여 상반기중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 하반기 들어 지난해부터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 독일 경제는 세계개혁<sup>5)</sup>,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등 성장촉진 요인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문의 구매력 감소, 고유가 및 고금리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상쇄됨으로써 2001년 중에도 금년과 비슷한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독일의 경상수지는 전년의 흑자에서 2000년엔 적자로 반전될 전망
  - 1994년 이후 독일의 경상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되어 1999년에는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00년에는 다시 적자가 예상됨.

<그림 부록 II-16>독일의 GDP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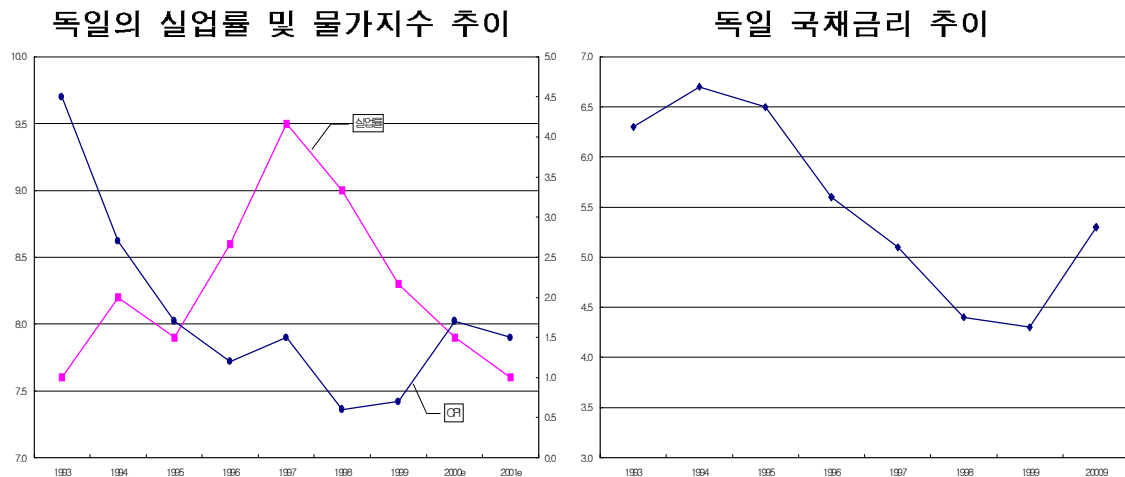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5) 독일 연방상원은 2000년 7월 4일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대기업의 주식처분시에 부과 하던 자본이득세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방정부 세계개혁법안을 통과

- 독일의 경제성장률 확대에 따라 실업률의 감소와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 독일의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률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 경기회복 및 고유가로 물가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의 우려는 없어 보임.
  
- 금리는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

<그림 부록 II-17> 독일의 실업률, 물가, 국채금리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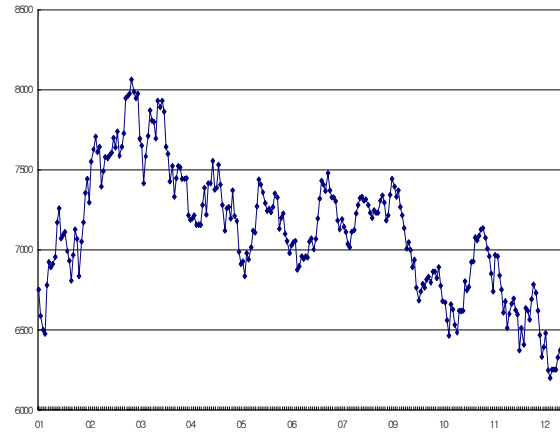
- 약세를 보이던 마르크화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강세를 시현
  - 미국 경기의 둔화와 독일 경제성장률의 상승기대 및 유로화의 강세 등으로 마르크화가 강세를 시현
  
- 독일의 주가도 세계적인 주가하락에 따라 하락세를 시현

<그림 부록II-18> 독일의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마르크/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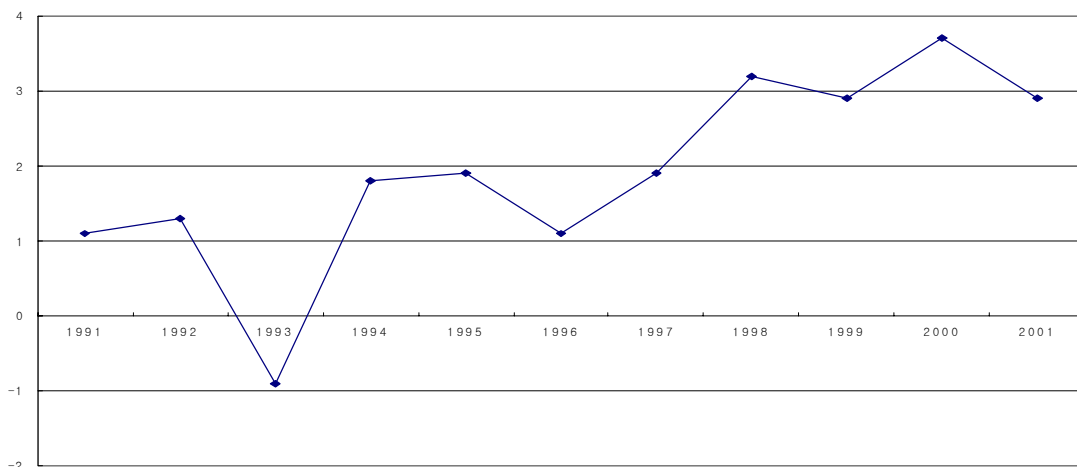
독일 주가지수(DAX30) 추이



자료 : Datastream

-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의 2.9%보다 다소 높은 3%대 중반의 성장을 시현
  - 유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효과로 가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기업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데 기인
  - 프랑스 경제도 지난 수년간의 투자 부진에 따른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 필요성 증대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독일의 경우와 비슷한 성장제약 요인이 작용함에 따라 금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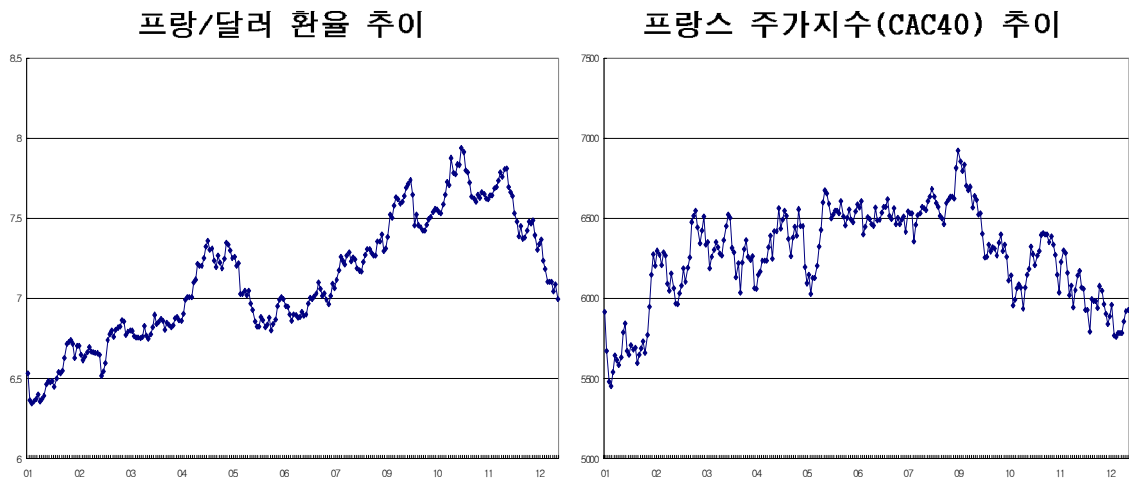
<그림 부록II-19> 프랑스 GDP성장률 추이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각호.

- 약세를 보이던 프랑화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강세를 시현
  - 미국 경기의 둔화와 프랑스 경제성장률의 상승기대 및 유로화의 강세 등으로 프랑화가 강세를 시현
- 프랑스의 주가도 세계적인 주가하락에 따라 하락세를 시현
  - 연초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9월을 고비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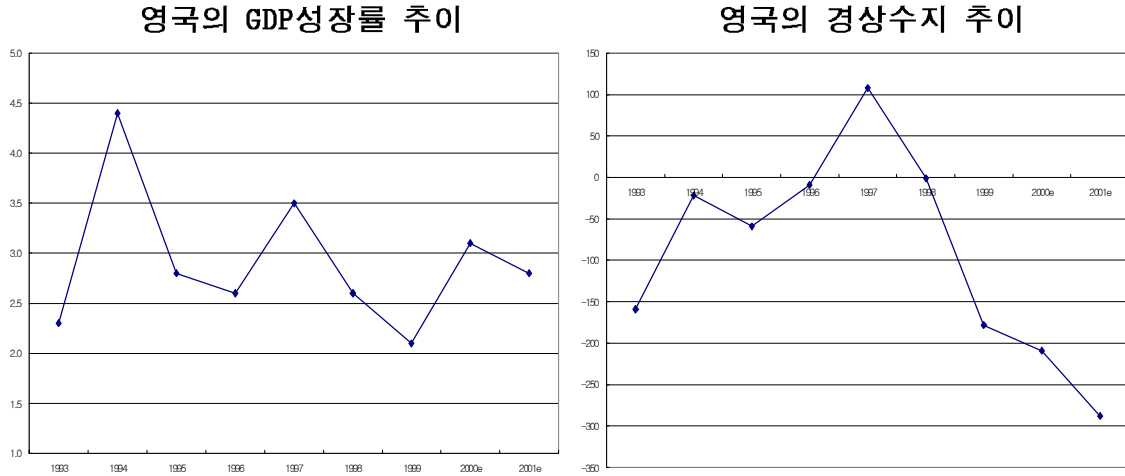
**<그림 부록II-20> 프랑스의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 영국의 경우 지난해보다 높은 3% 내외의 성장을 시현
  - 가계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된 데 힘입은 수출 호조에 기인
- 200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올해에 비해 다소 낮아질 전망
  - 고유가의 영향과 최근 수년간 활황을 보인 주식시장 및 주택시장에서의 부의 효과 소멸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에 기인
- 영국의 경상수지는 적자 지속
  - 유로권의 경기침체와 파운드화의 고평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 경상수지 적자폭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2001년에도 적자가 확대될 전망

<그림 부록 II-21> 영국의 GDP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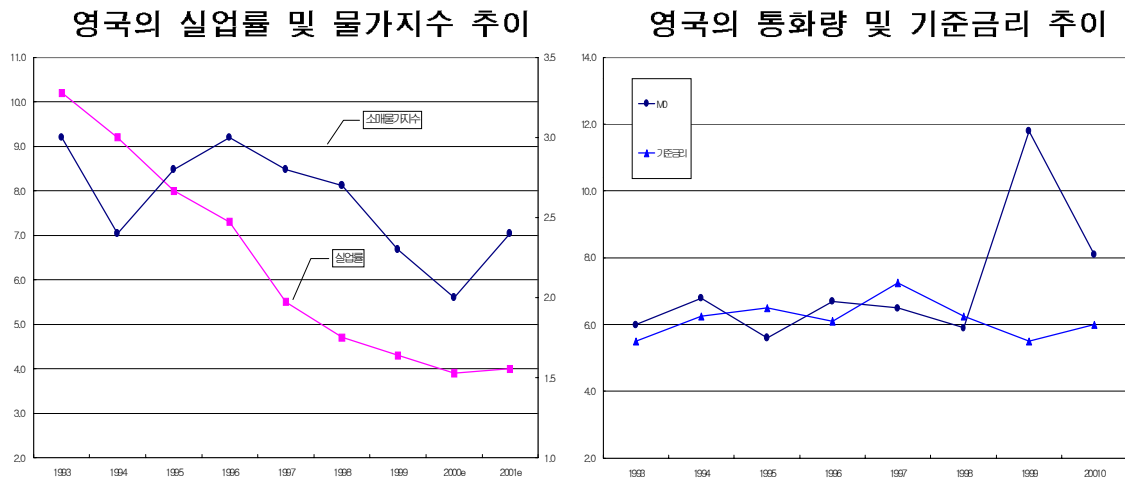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실업률과 물가는 계속 감소세

- 실업률은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2001년 중에 경기둔화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며
- 소매물가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1년 중에 반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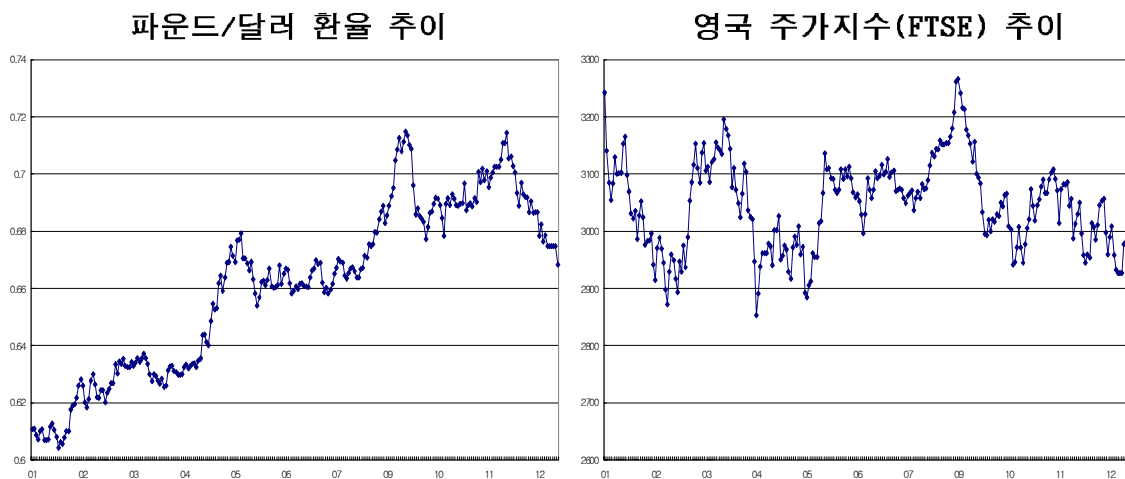
<그림 부록 II-22> 영국의 실업, 물가, 통화량, 기준금리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기준금리는 큰 변동없이 5~6%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화량증가율은 증가세 하락
  - 2000년 중 중앙은행들의 시중 유동성 흡수에 따라 증가율이 1999년에 비해 감소
  
- 약세를 보이던 파운드화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강세를 시현
  - 미국 경기의 둔화와 영국 경제성장률의 상승기대 및 유로화의 강세 등으로 파운드화가 강세를 시현
  
- 영국의 주가는 세계적인 주가의 동반하락에도 횡보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부록II-23> 영국의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 5. 아시아 지역

-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경제상승세가 확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내수 확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경제개혁 부진과 정치·사회적 불안 지속으로 여타 아시아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을 시현
  - 중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과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계속 8%를 넘어서는 고성장을 지속

-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은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율 하락과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 등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 내년 중에도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7%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표 부록 II-2> 주요 아시아 신흥시장국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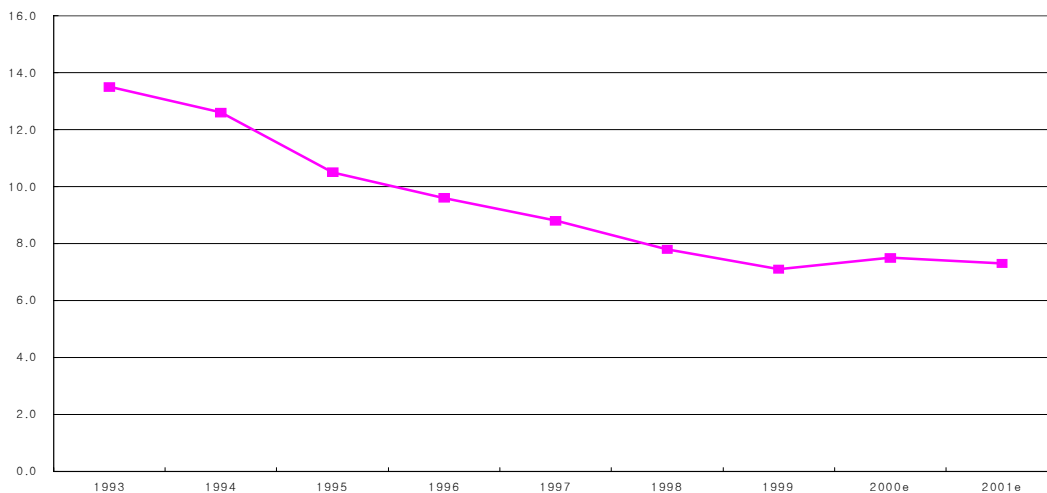
(단위 : %)

	1999	2000		2001	
		IMF	OECD	IMF	OECD
중 국	7.2	7.5	8.0	7.3	7.6
태 국	4.2	5.0	5.6	5.0	5.8
인도네시아	0.3	4.0	3.7	5.0	5.0
말레이시아	5.6	6.0	8.5	6.0	7.0
필 리 핀	3.3	4.0	3.5	4.5	3.0

주: 1999년 실적치는 IMF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1년 경제전망」, 2000. 12.

<그림 부록 II-24> 중국 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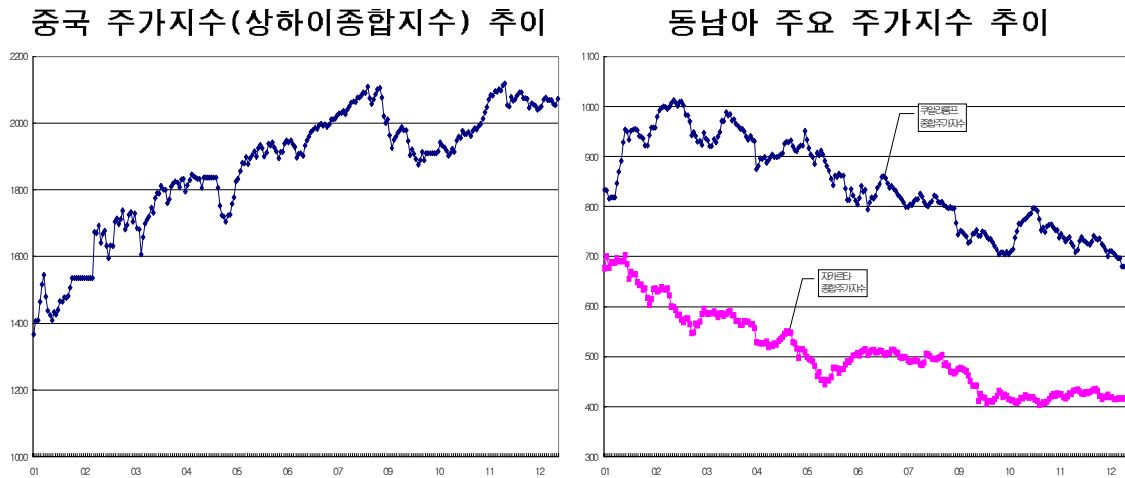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 중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꾸준한 상승세 시현
  - 중국이 큰 폭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세계주가의 동반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임.
- 동남아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 시현

<그림 부록 II-25> 중국 및 동남아 주요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 6. 중남미

- 지난해 저성장을 보였던 중남미지역도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시현
  - 브라질은 전년 4/4분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금년에도 이어지면서 4% 정도의 성장을 시현
  - 칠레도 전년 4/4분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금년에도 이어지면서 6% 정도의 성장을 시현
  - 멕시코는 미국 경제의 호조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판매수입의 증가 등에 힘입어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여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 아르헨티나는 경기회복이 지연됨.
    - 외채의 급증과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기인

- 중남미 국가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금년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은 1999년초 헤알화 절하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데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금년에 이어 4%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멕시코는 미국의 경기둔화와 국제원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금년의 6%대에서 4%대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외채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sup>6)</sup>, 정치 불안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중에도 경기회복세 불투명

**<표 부록 II-3> 주요 중남미 신흥시장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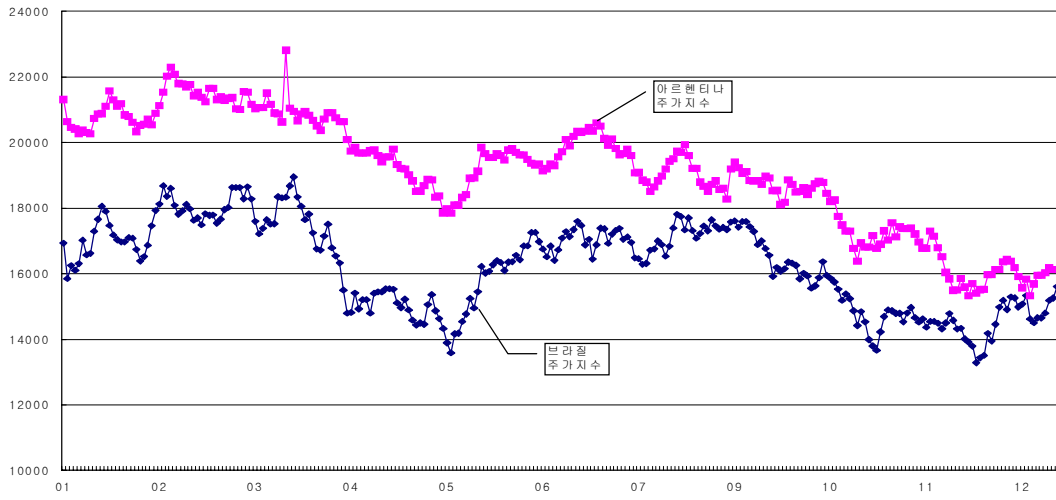
	1999	2000	2001
브 라 질	1.0	4.0	4.5
멕 시 코	3.5	6.5	4.8
아르헨티나	-3.1	1.7	4.2
베네수엘라	-7.2	2.5	3.7
칠 레	-1.1	6.0	8.8

자료 : 한국은행, 「2001년 경제전망」, 2000. 12.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가도 세계주가하락에 따라 하락세 시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1년 중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시현

6) 외채는 1997년 중 명목GDP 대비 42.6%에서 1999년 중 51.1%로 증가  
재정수지 적자는 1997년 중 명목 GDP대비 2.0%에서 1999년 중 4.1%로 확대

<그림 부록 II-26>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 참 고 문 헌

산업자원부, 『산업경제동향』, 각호.

\_\_\_\_\_, 『수출입동향』, 각호.

재경부, 『물가동향』, 각호.

\_\_\_\_\_, 『주요경제지표』, 각호.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

한국은행, 『교역조건동향』, 각호.

\_\_\_\_\_, 『국제수지동향』, 각호.

\_\_\_\_\_, 『기업경영분석』, 각호.

\_\_\_\_\_, 『주요경제지표』, 각호.

\_\_\_\_\_, 『통화개관표』, 각호.

\_\_\_\_\_, 『2001년 경제전망』, 2000. 1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